



2012년 3월 16일

투자전략 Daily

투자전략 | 김정훈 ☎ 3276-6230
 시황 | 박소연 ☎ 3276-6176
 글로벌전략 | 박중제 ☎ 3276-6560
 이머징마켓 | 윤항진 ☎ 3276-6280
 경제분석 | 전민규 ☎ 3276-6229
 계량분석 | 노근환 ☎ 3276-6226
 파생상품 | 안혁 ☎ 3276-6272
 채권분석 | 이정범 ☎ 3276-6191



• 투자전략

촉진의 달이 다가온다

• 이머징마켓 동향

경기하강 우려 및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약세

• 전일 시장 특징주 및 테마

• KIS 투자유망종목

단기 유망종목: 파트론 외 5종목

중장기 유망종목: NHN 외 6종목

• 산업/기업분석

반도체/부품, 휴대폰업종

NICE평가정보, 골프존, CJ E&M, 삼성전자, 솔브레인,

풍산, 한진해운

•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선물 옵션 시장 동향

• 증시 캘린더

주요 증시 지표 및 주체별 거래 동향

◆ 주요 증시 지표

구 분		03/08(목)	03/09(금)	03/12(월)	03/13(화)	03/14(수)	03/15(목)	
유가증권	종합주가지수	2,000.76	2,018.30	2,002.50	2,025.04	2,045.08	2,043.76	
	등락폭	18.61	17.54	-15.80	22.54	20.04	-1.32	
	등락종목	상승(상한)	500(6)	444(6)	304(3)	492(2)	462(5)	327(3)
		하락(하한)	324(2)	350(1)	536(1)	332(2)	359(0)	499(1)
	ADR	95.10	95.43	92.94	92.93	94.33	91.62	
	이격도	10 일	99.61	100.43	99.73	100.68	101.47	101.33
		20 일	99.47	100.34	99.53	100.60	101.49	101.38
	투자심리	50	60	50	60	60	50	
	거래량 (백만 주)	450	407	370	443	535	471	
	거래대금 (십억 원)	6,243	5,296	4,734	5,582	6,310	5,913	
코스닥	코스닥지수	535.76	539.55	536.11	538.46	538.86	538.31	
	등락폭	3.28	3.79	-3.44	2.35	0.40	-0.55	
	등락종목	상승(상한)	560(26)	549(9)	387(15)	491(15)	466(17)	366(12)
		하락(하한)	400(13)	413(5)	565(6)	464(5)	482(7)	581(7)
	ADR	103.38	102.61	98.03	95.71	94.73	91.81	
	이격도	10 일	99.37	100.10	99.61	100.04	100.14	100.12
		20 일	99.64	100.20	99.49	99.88	99.92	99.82
	투자심리	50	60	50	60	60	50	
	거래량 (백만 주)	782	879	765	755	845	813	
	거래대금 (십억 원)	2,322	2,330	2,185	2,251	2,464	2,401	

◆ 주체별 순매수 동향

(단위: 십억원)

구 분		개 인	외국인	기관계	(증권)	(보험)	(투신)	(사모)	(은행)	(종기금)	기 타
유가증권	매수	3,223.6	1,306.1	1,239.2	220.9	300.8	313.6	46.9	53.5	303.5	182.7
	매도	3,147.6	1,168.9	1,458.6	174.2	211.0	642.2	57.2	60.4	313.6	176.4
	순매수	76.0	137.2	-219.4	46.7	89.8	-328.6	-10.3	-6.9	-10.1	6.3
	03월 누계	277.6	-32.6	-204.1	45.5	412.7	-628.7	-27.5	13.8	-19.9	-40.8
	12년 누계	-6,653.4	10,486.5	-2,587.4	777.0	913.1	-3,393.5	181.8	293.2	-1,359.0	-1,245.7
코스닥	매수	2,249.2	71.0	81.8	6.3	19.5	32.6	3.5	4.8	15.1	18.9
	매도	2,210.2	80.6	109.5	11.5	13.4	50.6	6.4	7.0	20.6	20.5
	순매수	38.9	-9.6	-27.7	-5.2	6.1	-18.0	-2.9	-2.2	-5.5	-1.6
	03월 누계	186.3	0.4	-113.8	-18.7	-21.6	-61.4	-7.1	-1.5	-3.4	-72.9
	12년 누계	531.7	-0.2	-129.5	-37.7	31.7	-189.9	10.0	-24.2	80.6	-402.0

축진의 달이 다가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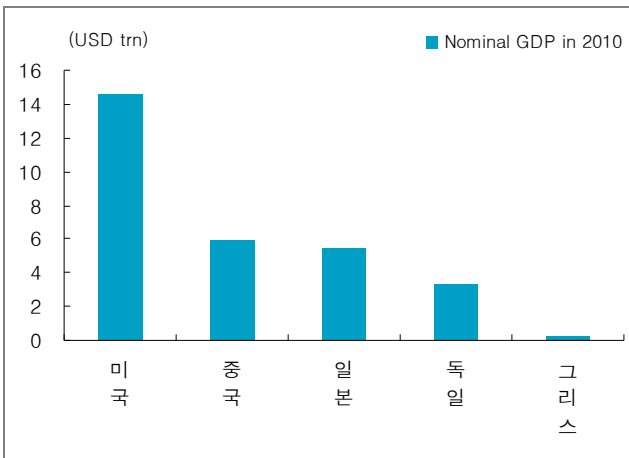
3월 월간 밴드	1,900-2,050pt
2012 연간 밴드	1,650-2,250pt
12MF PER	9.5 배
12MF PBR	1.18 배
Yield Gap	6.9%P

- ▶ 중국 12.5계획: 중진국 함정(Middle income trap)을 피하자
- ▶ 새로운 개념, 새로운 도전, 소비축진의 달?
- ▶ 무엇을 봐야 하나?: 가전/자동차/유통/관광객 관련 중국 소비주

■ 중진국 함정(Middle income trap)을 피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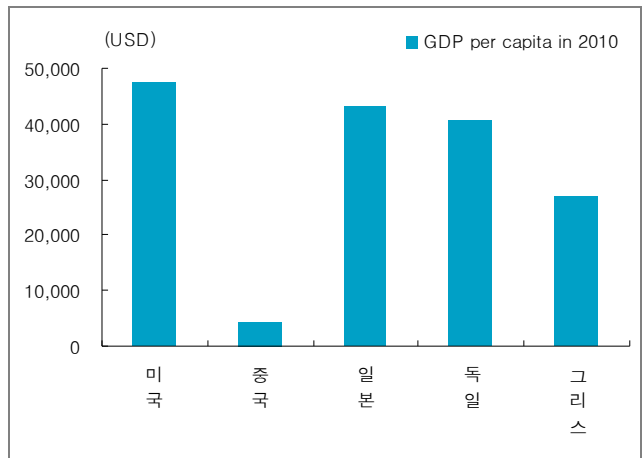
2012년 중국이 이루고자 하는 핵심목표는 무엇일까? 여러 가지 답안이 제시되었지만 필자는 아래 두 그림을 주목한다. 중국정부가 2012년은 물론 12.5 계획기간에 해결해야 하는 필수과제가 아래 그림에 잘 나타나 있기 때문이다. 일본을 제치고 경제 2위 대국으로 부상한 중국 [그림 1], 그러나 보잘것없이 초라한 1인당 GDP가 중국경제의 현실이다 [그림 2]. 2012년 중국은 무조건 덩치를 키우기보다 천천히 가더라도 다 함께 가는 질적 성장을 추구할 것으로 보인다.

[그림 1] 중국은 세계 2위 경제대국으로 올라섰으나



자료: IMF, 한국투자증권

[그림 2] 중국의 1인당 GDP는 선진국에 못 미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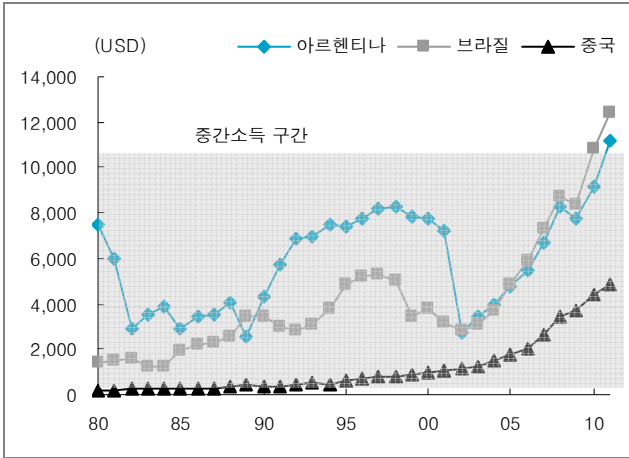


자료: IMF, 한국투자증권

중국이 질적 성장을 추구하게 된 계기는 ‘중진국 함정(middle income trap)’에 있다고 판단한다. 중진국 함정이란 개도국이 경제발전 초기에 순조롭게 성장하다 중진국 수준에 와서는 성장이 장기간 정체되는 현상을 말하는데 중국은 이를 막기 위해 양적 성장도 과감히 벗어던진 것으로 보인다 (바오빠, 保八, 8% 성장률 유지 포기). 역사적으로 중진국 함정에 빠져 경제발전이 후퇴한 국가는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중남미 국가가 있다. 세계은행¹의 정의에 따르면 중국은 현재 고중간소득국가(1인당 연평균 소득이 \$3,500~\$11,000인 국가)의 문턱을 넘어선 상태다 [그림 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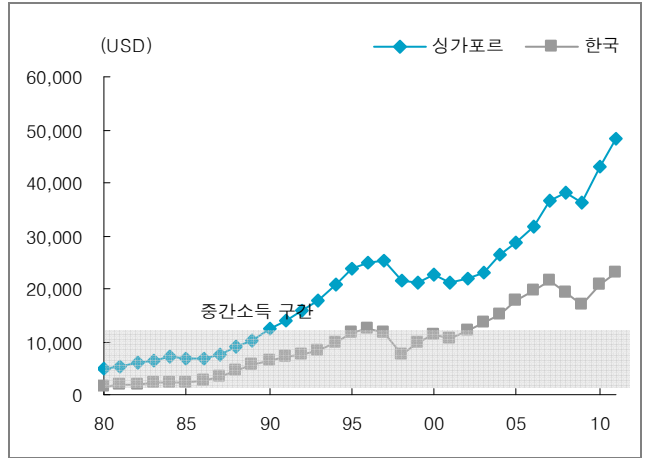
1 세계은행의 정의에 따르면 1인당 연평균 소득 \$900이하인 국가는 저소득국가로, \$900~\$11,000는 중간 소득국가로 각각 분류 됨. 중간소득국가는 또 다시 두 종류로 분류되는데 연평균소득이 \$900~\$3,500인 국가는 중간소득국가로 \$3,500~\$11,000인 국가는 고중간소득국가로 다시 분류됨

[그림 3] 나쁜 예: 브라질, 아르헨티나



주: 브라질(2006부터 예상치), 아르헨티나(2009), 중국(2010)
 자료: IMF, 한국투자증권

[그림 4] 좋은 예: 싱가포르, 한국



주: 싱가포르(2009부터 예상치), 한국(2009)
 자료: IMF, 한국투자증권

세계은행은 중진국 함정을 피하는 방안으로 교육제도 개선²을 제시하고 있다. 중진국이 선진국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대학과 직업교육이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이의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싱가포르와 한국이 거론된다. 중국도 최근 이를 본받아 교육부문의 예산을 확대하고 있다. 질적 성장에 대한 고민이 담긴 중국 정부의 변화다.

<표 1> 중국 정부 예산안 항목별 비중

(단위: 조 위안)

항목(금액)	11년 예산	11년 실적	12년 예산
총지출	10	10.89	12.43
총수입	8.97	10.37	11.36
항목(비중)	11년 예산	11년 실적	12년 예산
국방	17%	18%	17%
사회보장	13%	14%	15%
농업 등	14%	15%	15%
교육	9%	10%	10%
교통, 운송	9%	10%	10%
과학, 기술	6%	6%	6%
보장성 주택	4%	5%	5%
의료, 위생	5%	5%	5%
공공안전	5%	5%	5%
환경보호 등	5%	5%	5%
양식비축	3%	3%	3%
자원, 전력	2%	3%	2%
문화, 체육	1%	1%	1%
국토, 기상	1%	-	-
공공서비스	3%	-	-
상업, 서비스	2%	-	-

주1: 총지출과 총수입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합, 세부항목은 중앙재정 투자지출 기준으로 작성

주2: 음영 처리된 부분은 예산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확대된 항목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2 James W. Adams, World Bank East Asia and Pacific Regional Vice President “The significance of higher education will increase as countries work to escape the middle income trap”

■ 새로운 개념, 새로운 도전, 소비촉진의 달?

질적 성장에 대한 고민은 2012년 중국 소비부양책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과거 ‘중국 관련주 붐’을 가능케 했던 4조 위안의 경기부양책, 가전하향, 이구환신, 자동차하향 등과 같은 대규모, 직접 투입적인 소비부양책³이 점점 자취를 감추고 있기 때문이다. 그 대신 보다 간접적인 형태의 신(新)경기부양책이 등장하고 있다. 이전 정책이 ‘물고기를 직접 잡아주는’ 정책이었다면 새로운 정책은 ‘물고기를 잡는 그물을 마련해주는’ 정책에 가깝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다음 달부터 시도될 ‘소비촉진의 달’이다.

중국 상무부(MOFCOM)는 이번 ‘소비촉진의 달’을 4/2일~5/4일(청명절부터 노동절 기간)로 지정했다⁴ (<표 3>참조). 이는 상무부가 처음 기획하는 전국적 규모의 소비촉진 활동으로 <12.5계획 소비확대 의견>의 핵심이다. 앞으로 소비촉진 활동의 세칙 발표가 남아있지만, 활동의 초점은 다음 항목들에 맞춰져 있다:

<표 2> 2012년 소비촉진 활동 관련 내용 정리

항목	<12.5 계획 소비확대 의견>
一	2012년부터 1년 중 1달을 ‘소비촉진의 달’로 지정, 전국 판촉행사 시행
二	농촌소비 부양
三	친환경 소비 부양
四	홈쇼핑, 온라인 쇼핑 촉진
五	신용카드 사용범위 확대, 전산결제시스템 강화
항목	소비촉진 활동 초점
一	홍보, 할인판매 등을 통한 브랜드 소비촉진
二	무이자 할부, 저금리 할부 등의 신용소비 촉진
三	온라인 쇼핑 판매 촉진
四	에너지 절감형 제품의 녹색소비 촉진
五	특색 음식 전시를 통한 지역음식 홍보
항목	소비촉진 활동 구호
一	소비확대, 민생 개선, 발전촉진 (扩大消费, 改善民生, 促进发展)
二	저탄소 소비, 질 좋은 생활 (低碳消费, 品质生活)
三	믿을 수 있는 구매, 편리한 구매, 경제적인 구매 (放心购, 便利购, 实惠购)
四	모두 다 함께 친환경, 녹색쇼핑 (绿色消费大家行, 环保购物一起来)
五	국산 브랜드를 아끼고, 사용하자 (爱我品牌, 用我品牌)

자료: 상무부, 재정부, 인민은행, 한국투자증권

■ 무엇을 봐야하나?: 가전/자동차/유통/관광객 관련 중국 소비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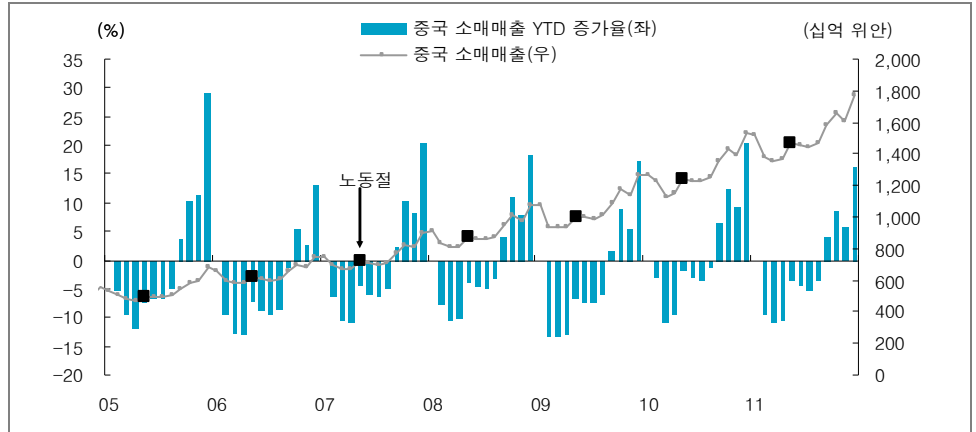
이번 소비촉진책은 계절적으로 중국의 소비모멘텀이 강화되는 시점에 정책효과가 더해진다는 측면에서 의미를 갖는다. 통상 중국의 소매판매는 매년 노동절 연휴 직전부터 확대되는 패턴을 그리는데 [그림 5] ‘소비촉진의 달’ 행사로 그 효과가 배가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3 직접 투입적인 경기부양책 간략 소개: 4조 위안의 경기부양책, 가전하향(家電下鄉, 가전제품 구매 보조금), 이구환신(以舊換新, 가전제품 교환 보조금), 자동차하향(汽車下鄉, 소형차 구매 보조금) 등

4 <http://english.mofcom.gov.cn/static/column/newsrelease/significantnews.html/1>

이에 총수요 확대(Q의 증가)가 예상되는 소비품목 수혜주들에 관심이 요구된다. 특히 ▲ 이번 촉진활동의 초점이 신용소비 확대에 맞추어져 있고, ▲ 과거 노동절 기간에 내구재 소비가 확대되었다는 점에서 가전 [그림 6], 자동차 등 대형 내구소비재의 수혜가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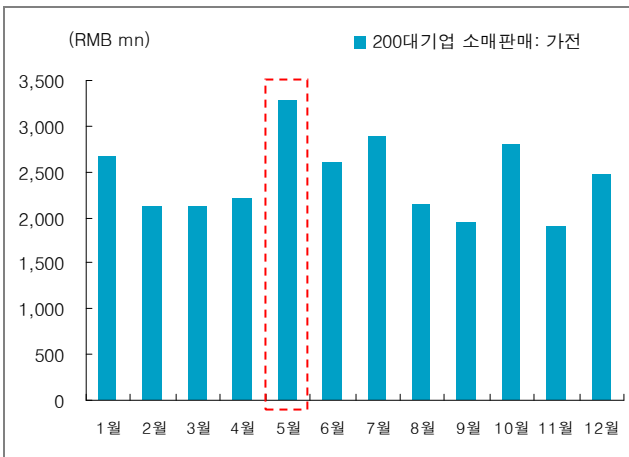
[그림 5] 중국 소매 매출 확대 패턴



자료: CEIC, 한국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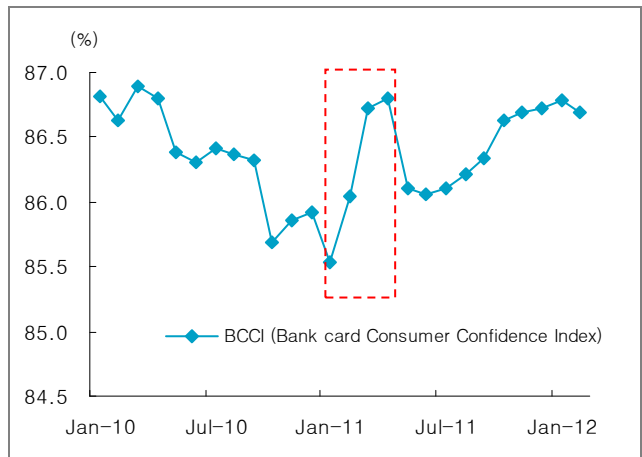
자동차는 중국 신용소비 확대의 수혜를 톡톡히 누릴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신용카드 사용자 비중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무이자 할부, 저금리 하부 등의 서비스 제공은 자동차 판매의 긍정적인 모멘텀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중국 신용카드 소비지표로 널리 사용되는 BCCI(Bank card consumer confidence index)의 경우 지난해 3~4월 상승세가 두드러진 바 있는데 [그림 7] 이 역시 신차 소비 확대를 위해 자동차회사와 카드회사가 합작으로 벌인 판촉행사의 결과였다.

[그림 6] 200대기업 가전 판매



자료: CEIC, 한국투자증권

[그림 7] 신용카드 소비지수



자료: CEIC, 한국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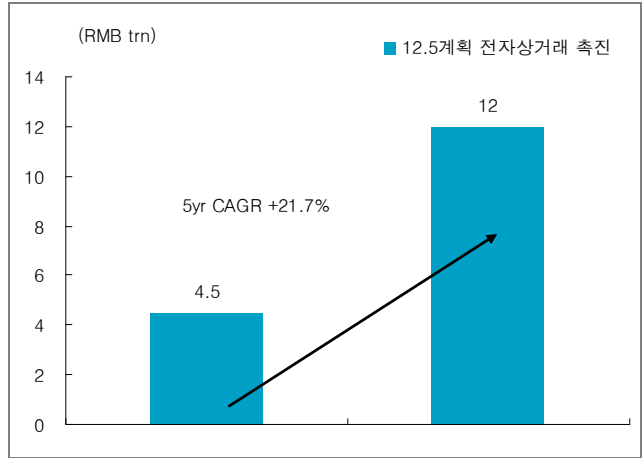
소비유통망의 질적인 개선도 간과할 수 없는 변화다. 유통 섹터 특히 인터넷쇼핑, 홈쇼핑 등 현대유통방식과 카드결제, 휴대폰 결제, 결제보안 관련 기업의 수혜 가능성이 엿보인다. ‘소비촉진의 달’이 처음 소개된 지난 10/26일 시장대비 상대적인 강세를 보인 중국 유통업체 남경중상(600280CH)은 현재 상대적인 강세를 지속하고 있다.

[그림 8] 중국 유통기업 남경중상 상대강도



자료: CEIC, 한국투자증권

[그림 9] <12.5계획 전자상거래 촉진>



자료: 언론매체, 한국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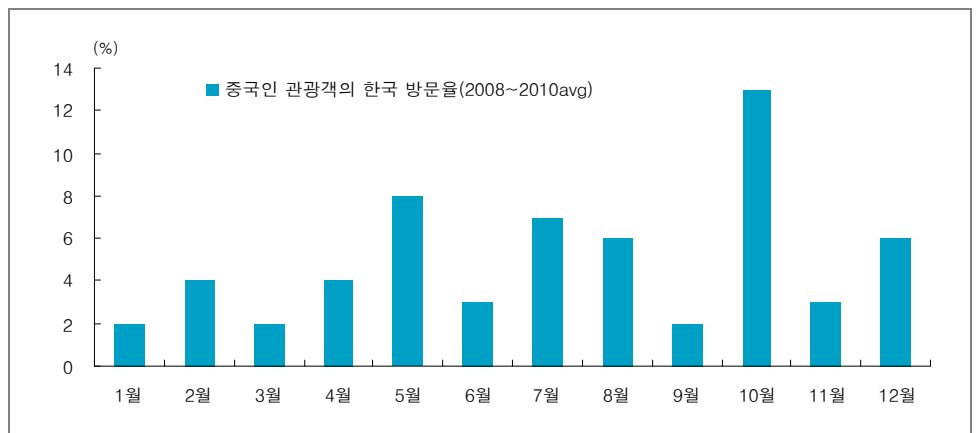
또한, 간접수혜의 측면에서 한국을 방문하는 중국인 관광객 증가를 생각해 볼 수 있겠다. 특히 이번 소비촉진의 달은 천명절과 노동절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소비모멘텀 강화가 여행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중국 천명절, 노동절 연휴 기간에 유입되는 중국 관광객들의 선호품목(화장품) 또는 선호 구매장소(면세점)도 일부 수혜가 예상된다.

<표 3> 2012년 중국 공휴일 정리

공휴일	휴일 일수	기간	대체 출근일
원단	3 일	1/1(일)~1/3(화)	2011/12/31(토)
춘절	7 일	1/22(일)~1/28(토)	1/21(토), 1/29(일)
천명절	3 일	4/2(월)~4/4(화)	3/31(토), 4/1(일)
노동절	3 일	4/29(일)~5/1(화)	4/28(토)
단오절	3 일	6/22(금)~6/24(일)	
중추절, 국경절	8 일	9/30(일)~10/7(일)	9/29(토)

자료: 국무 행정청, 한국투자증권

[그림 10] 중국인 관광객 한국 방문율



자료: CEIC, 한국투자증권

경기하강 우려 및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약세

- ▶ 중국 상무부, 2월 FDI 순유입액 전년동월비 0.9% 감소. 4개월째 감소세 지속
- ▶ 중국 국가통계국, 1~2월 부동산경기지수 97.9로 9개월째 둔화세
- ▶ 중국, 보시라이 중경시 서기 해임, 왕리쥘 부시장도 공식 해임 - 신화통신

상해증시 이틀 연속 약세
부동산, 원자재, 운송주
하락 주도

■ 중국 시장

상해종합지수가 이틀 연속 약세를 기록했다. 직전일 급락 이후 매도세가 진정되며 오전 한 때 반등했으나 다시 하락세로 전환했다. 전일 원자재와 총리의 부동산 관련 언급 여파가 지속됐고 전인대 후속 정책에 대한 기대심리도 회복되지 못했다. 2월 FDI가 감소세를 지속하고 부동산경기지표가 9개월 연속 둔화되면서 경기하강에 대한 우려도 가중됐다. 그 외 보시라이 중경시 서기의 공식 해임에 따른 정치적 불확실성이 매도압력으로 작용했다. 업종별로는 부동산중개(-3.90%), 농업(-3.49%), 철강(-3.42%), 부동산개발(-3.07%), 비철금속(-2.69%), 해운(-2.12%), 항공(-1.87%) 등이 약세를 주도했다. 제약(+2.88%), 음식료(+1.24%), 유통(+0.97%), 보험(+0.54%), 석유 및 천연가스(+0.31%) 업종은 상승세로 보였다. 종목별로는 중경맥주(-8.23%), 중강부동산(-6.03%), 폴리부동산(-2.55%) 등 중경시 관련주와 부동산주가 큰 폭 하락했다.

H지수 동반 약세
중국 정책 및 경기 불확실성,
수급 우려로 매도세 지속

■ 홍콩 시장

홍콩 H지수도 이틀째 하락했다. 약보합으로 개장 후 장 중 1% 이상 낙폭을 확대했으나 후반 낙폭이 축소됐다. 중국의 부동산 정책 불확실성과 FDI 등 지표 부진이 악재로 작용했고 주요 기업들의 잇따른 증자 및 IPO 계획으로 수급 우려가 부각됐다. 업종별로는 광업, IT, 전력, 건설, 화학, 운송, 부동산이 크게 내렸고 그 외 비철금속, 석유 및 천연가스, 석탄, 가전도 하락했다. 반면 장 중 약세를 보였던 보험주가 후반 큰 폭으로 반등했고 통신, 은행, 유통, 자동차업종이 강세로 마감했다.

◆ 주요 이머징마켓 주가지수 추이

(단위: p, %)

구 분	3/15(목)	전일 대비(%)	5거래일 전 대비(%)	1개월 전 대비(%)	연초 대비(%)
중국 상해종합	2,373.77	-0.73	-1.92	-2.25	7.93
홍콩 H	11,240.57	-0.53	0.65	-4.96	13.12
인도 SENSEX	17,686.98	-1.30	3.16	-0.37	14.44
러시아 RTS	1,742.81	-0.53	3.96	0.45	26.12
브라질 보베스파	68,257.22	-0.20	3.39	3.72	20.27
베트남 VN	441.85	1.84	2.36	4.30	25.69
MSCI 이머징마켓	1,066.83	0.03	1.34	-1.17	16.42

주: 15일 오후 5시 30분 기준

전일 시장 특징주 및 테마

종목/테마	내 용
오리온(001800) ▶843,000(+4.33%) CJ제일제당(097950) ▶341,000(+4.12%)	<p>아시아 시장점유율 확대 전망에 동반 강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향후 제품력과 선제적인 설비투자를 통해 아시아 시장점유율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에 동반 강세 - 중국 제과사업 성장에 따른 오리온의 실적 개선 기대감 및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CJ제일제당의 자산 매각 가능성 또한 주가에 호재로 작용
광동제약(009290) ▶4,790(+9.24%)	<p>‘삼다수’ 국내유통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소식에 신고가 경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 매출이 2,000억원 규모의 생수업체 ‘삼다수’의 국내유통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는 소식에 신고가 경신 - 제주개발공사와의 협상을 통해 오는 24일 최종 계약을 체결하게됨에 따라 4월부터 본격적인 판매가 시작돼 동사의 유통권 확보에 따른 시너지 효과 기대
락앤락(115390) ▶32,900(+8.22%)	<p>실적 호조 기대감에 급등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난해 중국 매출 둔화에 대한 우려감에 주가가 고점 대비 35% 급락한 가운데 중국 매출이 증가세로 전환할 것이라는 전망에 급등세 - 1~2월 매출액이 전년동기대비 20%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중국 글라스 온라인 입점, 3월 성수기 진입 등에 따른 실적 개선 기대
휴온스(084110) ▶13,450(상한가)	<p>‘에포틸론’ 제조 특허권이 부각되며 상한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에서 ‘에포틸론’으로 치매치료에 성공했다는 소식이 전해짐에 따라 에포틸론 제조공법에 대한 특허권을 취득한 동사의 수혜 기대감에 상한가 - 또한, 자회사인 바이오기업 휴메딕스와 공동 개발한 기능성 화장품 HU:ON 프로그램 7종 출시 소식도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
SG충남방직(001380) ▶2,055(상한가)	<p>한-미FTA 발효에 따른 수혜 기대감에 상한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미FTA가 발효됨에 따라 평균 13.1%의 관세가 폐지돼 국내 제품의 가격경쟁력 강화에 따른 수혜 기대감에 상한가 - 동사는 피스톤링 전문제조 업체인 대한이연의 지분 24%를 보유해 2대주주로 등재돼 있어 한-미FTA 발효에 따른 동시 수혜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

참고: 상기 종목들은 전일 시장에서 특징적인 흐름을 보인 종목들로, 추천 종목과는 별개이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단기 유망종목: 파트론 외 5개 종목

- 신규: 없음

- 제외: 없음

(단위: 원, %)

종 목 (코 드)	현재가 (수익률)	편입가 (편입일자)	투자 포인트
파트론 (091700)	13,500 (-2.9)	13,900 (3/0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삼성전자 갤럭시S2, 갤럭시노트 판매 급증에 따른 카메라 모듈 수요 확대에 의해 동사 매출 성장세 지속 전망 - 진동 모터 및 NFC 안테나 추가 공급 등 디바이스당 ASP 개선에 따른 꾸준한 외형 성장세 유지 예상 - 분기 사상 최대 실적 경신 행진, 전방산업 호조에 따른 이익 개선 모멘텀 등을 감안할 때 추가 상승 여력 상존
현대차 (005380)	228,000 (+0.7)	226,500 (2/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 중국, 유럽 등 주요 해외 시장에서의 구조적인 성장세 지속. 단기적인 실적 부진 우려보다는 질적인 변화를 주목할 필요 - 해외 및 국내 공장 증설에 따른 생산능력 확대 효과와 함께 글로벌 시장 점유율 개선세 지속 전망 - 브랜드 가치 제고와 디자인 경쟁력 강화 등에 힘입은 품질 개선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 추세를 감안할 때 밸류에이션 매력 재부각 가능성 상존
골프존 (121440)	67,700 (+13.2)	59,800 (2/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크린골프 라운딩수 증가, 골프 시뮬레이터 신제품 출시, 네트워크 서비스 매출 확대 등으로 양호한 성장세를 지속할 전망 - 미국 골프스미스와의 제휴는 국내 골프용품 유통사업과 미국시장 진출에 기여할 전망 - 최근 증시 강세를 감안할 때 ELS와 관련된 단기매매증권 평가손실은 환입될 가능성 충분 - GDR(Golf Driving Range)사업, 필드골프, 골프용품 유통 등의 사업 다각화, 독점적인 시장 지배력과 기술력 등을 감안할 때 추가적인 성장 잠재력 보유
성광벤드 (014620)	24,000 (+13.2)	21,200 (1/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수주잔고(1900억원)의 대부분이 상반기에 매출로 인식되고 2분기 신규 설비가 가동되면서 하반기 실적 개선세는 가속화될 전망 - 대형제품 생산 효율성 증대와 고부가가치 제품 비중 확대에 따른 수익 구조 개선 기대 - 피팅산업이 과점적 구조이고 지금이 업황 사이클 상승 초입국면임을 고려 시 2013년 이후에도 사상 최대 매출액 경신이 이어질 전망
네패스 (033640)	19,000 (+25.0)	15,200 (1/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삼성전자의 공격적인 모바일 AP(Application Processor) 사업 수혜주로 WLP(Wafer Level Packaging) 영업이익 비중(연결)은 금년에는 50% 이상으로 확대될 전망 - 삼성전자의 공격적인 시스템LSI 투자,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확대 등에 힘입어 실적 개선 모멘텀은 지속될 전망
LS (006260)	86,100 (+4.5)	82,400 (1/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력 자회사들의 제련 및 외환이익에 따른 4분기 흑자전환 및 2012년 턴어라운드 기대 유효 - LS산전과 LS전선의 보유 부동산 매각에 따른 현금 유입 가능성과 전력산업 및 인프라 투자 확대에 따른 수혜 가능성을 주목할 필요

■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상기 추천종목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현대차, LS 발행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ELW(주식워런트증권)를 발행 중이며, 당해 ELW에 대한 유동성공급자(LP)입니다.
- 당사는 골프존 발행주식의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대표 주관업무를 수행한 증권사이며, 발행주식의 자사주매매(신탁포함) 위탁 증권사입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에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당사는 동 자료의 조사분석 담당자와 배우자는 자료 작성일 현재 본 자료와 관련해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중장기 유망종목: NHN 외 6개 종목

- 신규: 없음

- 제외: 없음

(단위: 원, %, 십억 원, 배)

편입종목 (코드)	현재가 (수익률)	편입가 (편입일자)	2012년 추정실적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EPS	PER
GS건설 (006360)	102,500 (+4.7)	97,900 (3/02)	9,951	563	419	8,465	1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진한 실적 가이드런스, '페트로라빅2' 프로젝트 발주 지연, 수주 모멘텀 약화 등 저성장 우려로 주가 약세. 지연되고 있는 '페트로라빅2' 프로젝트는 조만간 재진행될 가능성이 높음 - 플랜트, 발전·환경 등 다양한 공종에서의 탁월한 시공 및 수주경쟁력과 오일샌드 EPC 경험 등을 바탕으로 한 성장 잠재력을 주목할 필요 							
NHN (035420)	237,000 (+6.3)	223,000 (2/21)	2,374	720	533	12,634	18.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라인 광고 매출의 고성장과 신작 출시에 따른 게임 부분 매출 성장으로 2012년 매출은 전년대비 10% 이상 증가할 전망 - 모바일에서도 확고하게 높은 검색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으며, 향후 모바일 광고와 게임, 일본 포털 사업은 성장동력이 될 전망 - 인터넷 포털과 온라인 게임 규제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이며, 주주이익 환원정책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 							
CJ CGV (079160)	27,150 (+4.2)	26,050 (2/08)	578	82	46	2,205	1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분기 실적은 예상보다 다소 부진했으나, 3D 영화 개봉, 1월 영화 관람객수 증가 등을 고려할 때 1분기 실적은 개선세를 보일 전망 - 좋은 위치 선점과 3D 등 차별화된 시설에 기반한 견고한 시장 점유율을 감안할 때 국내 매출은 안정적인 성장세를 지속할 전망 - 중국법인 등 자회사들이 적자를 시현하고 있지만, 해외 시장의 성장 잠재력 감안하면 자회사의 가치를 인정할 필요 							
영원무역 (111770)	23,900 (-7.0)	25,700 (1/30)	1,101	193	141	3,461	6.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격경쟁력으로 인한 방글라데시 OEM 수요 확대와 Seller's market 형성에 따른 구조적인 성장 스트리에 주목할 필요 - 선진국 및 중국의 아웃도어 의류 시장의 고성장세에 따른 수혜 및 니트 의류 및 신발/가방으로의 사업 다각화로 실적 안정성은 강화될 전망 							
엔씨소프트 (036570)	309,000 (+9.6)	282,000 (1/19)	837	279	230	11,621	26.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블레이드앤소울 3차 CBT 실시 후 곧바로 OBT/상용화될 예정으로 성장 모멘텀은 여전히 유효한 상태 - 블레이드앤소울, 길드워2 등의 순차적인 해외 상용화와 성공 가능성을 감안할 때 기업 가치 개선 흐름은 안정적으로 지속될 전망 							
서흥캡셀 (008490)	14,000 (-9.7)	15,500 (1/2)	170	29	14	2,033	6.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증설 이전으로 인한 하드캡셀 매출 증가 및 F&P(Food & Pharmaceutical) 부문의 성장세에 힘입은 실적 개선 모멘텀 지속 전망 - 2012년 예상 EPS 기준 PER은 7배 수준으로 최근 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추가 상승 여력 상존 							
기아차 (000270)	72,800 (+9.5)	66,500 (1/2)	30,974	2,422	4,188	10,330	7.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형시장 매출 비중 확대, 'Value Car' 이미지 강화, 디자인 혁신, 원화약세 등을 감안할 때 안정적인 성장기조는 지속될 전망 							

■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상기 추천종목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현재 NHN, 엔씨소프트, GS건설, 기아차를 기초자산으로 ELW(주식워런트증권)를 발행 중이며, 당해 ELW에 대한 유동성 공급자(LP)입니다.
- 당사는 현재 GS건설, 기아차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주식선물(주식옵션)에 대한 유동성공급자(LP)입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에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의 조사분석 담당자와 배우자는 자료 작성일 현재 본 자료와 관련해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반도체부품/장비: 성장의 3박자가 제대로 갖추어졌다

■ 중장기적 성장성을 갖춘 반도체 관련주에 주목하자

반도체 장비주 및 부품주들에 대한 우리 시각은 밝다. 장비주들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이유는 1) 단기적으로 NAND 투자 모멘텀이 강하고, 2) 중장기적으로 시스템LSI에 대한 공격적인 투자가 계속될 것으로 보이며, 3) 반도체 미세공정 전환을 위한 투자는 지속적으로 전개될 전망이다. 부품주들 역시 안정적인 성장이 예상되는데, 1) 반도체 후공정 외주는 점진적으로 확대되는 추세고, 2) 반도체의 모바일 탑재/집적화 추세 속에서 기존 저부가가치 메모리패키지 위주였던 국내업체들이 고부가가치 패키지(MCP, flip chip 등) 수요 증가의 수혜를 누릴 것으로 전망하기 때문이다.

■ NAND와 시스템LSI 투자가 2012년 반도체 장비업종의 주요 견인차

스마트폰 시장의 가파른 성장, HDD 공급난 등으로 2012년 NAND는 견조한 투자흐름이 예상된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올해 시스템LSI 부문에 메모리를 넘어서는 대폭적인 투자를 전개할 계획이다. 반도체 미세공정 전환에 대한 투자도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음을 감안하면, 주요 반도체장비업체들의 2012년 성장이 기대된다. 중장기적으로 우리는 시스템LSI와 미세공정 전환 투자가 장비업종 실적을 견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 가동률 회복으로 1Q12 이후가 기대되는 패키지업체들 주목

반도체패키지 업체들은 4Q11~1Q12F의 재고조정 기간 및 비수기를 거쳐 2~3월부터 가동률이 상승하기 시작해 본격적인 실적 모멘텀이 전개될 전망이다. 모바일용 탑재율 증가 및 반도체의 집적화 추세로 고부가가치 패키지(MCP, flip chip 등)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2012년 패키지 업체들은 매출 성장과 제품 믹스 개선이라는 두 가지 긍정적인 변화를 동시에 보여줄 것으로 예상된다.

■ Top pick: 원익머트리얼즈, 시그네틱스, STS반도체

현 시점에서 안정적인 매출 성장과 점진적인 수익성 개선이 기대되는 원익머트리얼즈(매수, 목표주가 62,000원), 2Q12부터 가동률 회복으로 매출 증가 모멘텀이 기대되는 시그네틱스(매수, 목표주가 5,400원)과 STS반도체(매수, 목표주가 13,100원)를 최선호주로 제시한다. 연간으로는 미세공정 전환과 시스템LSI 투자 수혜가 가장 클 것으로 기대되는 유진테크(매수, 목표주가 47,000원)와 삼성전자향 WLP 매출 성장성이 돋보이는 네팩스(매수, 목표주가 22,300원)를 2nd pick으로 추천한다. 원익IPS는 삼성전자의 장비투자 수혜주 관점에서 중장기적으로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한다. 하나마이크론(NR)은 안정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또 다른 주요 패키지업체란 점, 국제엘렉트릭(NR)은 저평가된 반도체 투자 수혜주란 점, 고려반도체(NR)는 고부가가치 후공정 장비 대표주란 점에서 중장기적 성장이 기대되는 종목들이다.

*상기 보고서는 2012년 3월 15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휴대폰 업종 : 삼성전자 휴대폰 - 갤럭시노트로 역사적 최고의 영업이익의 전망

■ 1분기에 갤럭시노트의 판매 호조를 반영하여 스마트폰 출하대수를 45백만대로 상향조정

우리는 1분기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출하대수를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전분기대비 10% 증가한 40백만대로 전망했었다. 하지만 1분기에 갤럭시노트가 예상보다 판매 호조를 나타내는 것으로 추정되어(갤럭시노트 예상판매대수를 3백만대에서 5백만대로 상향조정), 전체 스마트폰 출하대수를 45백만대로 상향조정한다. 갤럭시노트는 1) 5인치대 모바일 기기에 대한 잠재적 수요를 처음으로 충족시키고, 2) 펜을 사용하여 필기하는 것과 같은 느낌을 주는 것이 판매 호조의 요인으로 판단된다.

■ 1분기 휴대폰 영업이익을 3.3조원 기록하여 어닝서프라이즈를 기록할 전망

1분기에 전체 휴대폰 출하대수는 감소(QoQ)하지만 우리는 1분기 휴대폰 영업이익이 전분기대비 10% 증가한 2.54조원으로 전망했었다. 1) 스마트폰 비중 상승에 따른 ASP의 상승, 2) 마케팅 비용의 감소 등이 주요 요인이었다. 하지만 우리는 1분기 휴대폰 영업이익을 3.3조원으로 상향조정하는데 그러한 요인은 1) 수익성 높은 스마트폰 출하대수가 예상치를 상회했을 뿐만 아니라, 2) 특히 가장 높은 마진을 나타내는 갤럭시노트의 판매 호조(갤럭시노트 1백만대 당 영업이익을 2,000억원 창출하는 것으로 추정)가 어닝 서프라이즈를 견인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 2012년 연간 스마트폰 출하대수를 2.23억대로 16% 상향 조정

2012년 삼성전자의 연간 스마트폰 출하대수를 2.23억대로 16% 상향조정한다. 1) 1분기에 예상치를 상회하는 스마트폰 출하대수를 고려하고, 2) 경쟁업체인 HTC가 신규모델 출시가 늦어지고 있으며, 3) 아이폰5가 3분기에 출시될 것이 확실시됨에 따라 2분기에 출시될 갤럭시S3의 출하대수가 예상보다 양호할 전망이다. 특히 중국의 저가 스마트폰 제조업체들(ZTE, Huawei)의 성장에 따른 Risk가 존재하지만 중국 내에서 삼성전자 스마트폰 점유율이 여전히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그림 1 참조) 이러한 Risk는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 2012년 연간 휴대폰 영업이익 역시 11.7조원으로 18% 상향 조정

스마트폰 출하대수의 상향조정, 연간 ASP의 상향조정, 동종업체들의 경쟁력 약화 등을 고려하여 2012년 삼성전자의 연간 휴대폰 영업이익 역시 11.7조원으로 18% 상향조정한다. 특히 제품력 상승으로 과거와 같이 연말로 갈수록 마케팅비용의 지출이 급격하게 증가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3분기에 아이폰5를 비롯한 경쟁모델들이 다수 출시됨에 따라 하반기의 ASP의 하락폭이 상반기에 비해서는 확대될 것으로 당사는 예상한다.

*상기 보고서는 2012년 3월 15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NICE평가정보(030190)

Not Rated

종가(3/14): 25,300원

합병을 통한 시장지배력 강화

■ 2012년에도 견조한 성장은 지속될 전망

동사는 2010년 11월 한신평정보와 한신정의 분할/합병을 통해 설립되어 개인과 기업고객을 대상으로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국내 최대의 신용조회사이다. 동사는 2011년 매출과 영업이익으로 각각 1,176억원과 197억원을 실현하여 (IFRS개별기준) 기존 회사의 실적가이드를 무난히 충족시켰는데, 2012년에는 신규 서비스 확대를 통한 개인신용정보부문의 견조한 성장, 그리고 비금융기관 고객 확대를 통한 기업정보부문의 성장을 기반으로 매출과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각각 17%와 18% 증가한 1,375억원과 233억원을 실현하여 성장모멘텀이 지속될 전망이다.

■ 합병 시너지의 본격화를 통한 시장 지배력 강화

동사는 2012년부터 합병 시너지의 본격화를 통해 시장 지배력 강화 및 수익성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주력사업부문인 개인신용부문에서 한신평정보와 한신정의 합병을 통해 시장 점유율은 68%에 이르고 있는데, 경쟁사 대비 약점으로 지적되었던 개인에 대한 우량정보까지 확보가 가능해졌다. 이를 기반으로 고객사에 대해 보다 양질의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져, 시장지배력이 강화될 전망이다. 또한 기업정보부문에서도 동사는 금융기관을 대상으로는 70%의 시장점유율을 확보하였지만 비금융기업기관에서는 경쟁사 대비 뒤쳐져 왔다. 그러나, 중소기업 ERP업체로부터의 데이터베이스 제휴로 긍정적인 시장확대가 전망된다.

■ 액면분할을 통한 유동성 증가

그 동안 동사는 소형주라는 한계 외에도 낮은 거래량으로 인해 투자가 쉽지 않았다. 그러나 3월 주주총회 안건으로 액면분할(액면가 5000원에서 1000원으로 분할) 건이 상장되었는데, 이를 통한 유동성 증가로 투자자들의 접근이 보다 용이해질 전망이다.

	매출액 (십억원)	영업이익 (십억원)	세전이익 (십억원)	순이익 (십억원)	EPS (원)	증감률 (%)	EBITDA (십억원)	PER (x)	EV/EBITDA (x)	PBR (x)	ROE (%)
2009A	124	11	22	18	4,023	41.8	15	1.5	2.4	0.2	15.6
2010A	18	2	2	1	202	NA	2	153.0	78.0	2.4	1.2
2011F	118	20	20	15	2,474	NA	24	9.4	5.3	1.6	18.2
2012F	138	23	24	18	2,945	19.0	28	8.6	4.8	1.6	19.5
2013F	159	27	28	21	3,450	17.2	32	7.3	4.0	1.4	20.2

*상기 보고서는 2012년 3월 14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골프존(121440)

매수(유지)
목표가: 86,800원(상향)
종가(3/14): 67,500원

기존 사업, 신규 사업 모두 호조

■ 목표주가 86,800원으로 상향, 투자의견 '매수' 유지

골프존에 대한 목표주가를 70,000원에서 86,800원으로 24% 상향조정한다. 목표주가는 2012년 별도 기준 당기순이익에 목표 PER 14배를 적용했다. 2012년 수익전망을 라운딩수 증가와 유료이용률 상승, 신제품 판매 호조 등을 반영해 상향조정했고, 목표 PER도 성장성 개선을 반영해 13배에서 14배로 높였다. 다음 세가지 근거로 투자의견 '매수'를 유지한다. 1) 2012년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전년대비 각각 18.7%, 28.4% 증가해 고성장할 전망이다. 2) 골프용품 유통과 연습장 사업이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입하고 있다. 3) 2012년 PER 10.5배로 양호한 성장성대비 저평가됐다.

■ 1, 2월 라운딩수 급증, 유료이용률의 빠른 상승, 신제품 판매 호조

2012년 2월까지 스크린골프방 누적 라운딩수가 약 900만회로 전년동기대비 약 20% 증가했다. 유료이용률도 1월 73%, 2월 78%로 높아졌다. 1~2월 골프시물레이터 판매대수도 약 430대로 견조했다. 라운딩수 증가가 가장 중요하다는 이유는 골프시물레이터 판매와 네트워크 서비스 매출의 선행지표이기 때문이다. 라운딩수 증가는 스크린골프방 영업 호조를 의미해 신규 창업이 계속될 수 있어 기기 판매로 연결된다. 신규 골프방 창업과 기기 판매는 다시 라운딩수 증가로 이어져 네트워크 서비스 매출을 늘어나게 한다.

금년초에 출시한 상급자용 신제품 골프시물레이터 'VISION'의 수요가 좋다. 2월부터 시작한 보상판매를 신청한 골프방이 3월 현재까지 960개에 달할 정도로 반응이 좋다.

■ 골프연습장과 유통매장 사업 성공적인 시장진입

직영 골프연습장인 GDR(Golfzon Driving Range)은 현재 6개를 운영중이고, 금년말까지 30개점까지 오픈하는 것이 목표다. 점별 투자비가 기기, 인테리어, 임대보증금 등을 포함해 약 5~6억원이 소요된다. 성수기인 겨울에는 점별 회원수가 190~200명이었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가정하더라도 월 예상 매출이 3천만원으로 손익분기점(2,500만원)을 넘을 전망이다. 우리는 연말까지 20개 매장 운영을 가정해 2012년 매출을 45억원으로 예상한다.

골프용품 오프라인 유통매장인 골프팩토리는 기존 4개(분당, 송파, 부천, 선운산CC)과 3월 15일 오픈하는 강남점이 있다. 분당점은 월매출액이 4~5억원에 달할 정도로 호조다. 골프존은 매장수를 금년말까지 10~15개로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기존 온라인 유통사업인 '골핑(Golping)'과 더불어 오프라인 매장 신설과 골프스미스와의 제휴 등은 골프용품 구입시 규모의 경제 효과를 통해 타 사업자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고, 수익성이 높일 수 있다. 골프존의 금년 유통(B2B, 온라인, 오프라인) 매출 목표는 500억원이다. 우리는 2012년 유통 매출을 474억원으로 전년대비 63.3%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매출액 (십억원)	영업이익 (십억원)	세전이익 (십억원)	순이익 (십억원)	EPS (원)	증감률 (%)	EBITDA (십억원)	PER (x)	EV/EBITDA (x)	PBR (x)	ROE (%)
2009A	133	52	56	54	26,050	1,131.9	53	NM	NM	NM	75.0
2010A	184	63	69	66	6,462	(75.2)	65	NM	NM	NM	53.3
2011P	210	55	50	50	4,424	(31.5)	60	10.8	5.8	1.5	18.7
2012F	249	70	85	76	6,454	45.9	76	10.5	7.0	1.8	18.4
2013F	275	77	92	78	6,631	2.7	83	10.2	5.8	1.6	16.1

*상기 보고서는 2012년 3월 14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CJ E&M(130960)

매수(유지)

목표가: 43,000원(유지)

종가 (3/14): 30,600원

케이블 SO 매각, 주가에 긍정적인 뉴스

■ 장기적인 경쟁력 유지, 재무구조 개선, 매수의견 유지

CJ E&M에 대해 매수의견과 목표주가 43,000원을 유지한다. 목표주가는 12개월 forward EBITDA에 목표 EV/EBITDA 5.8배(12년 해외 미디어 업체의 평균 10% 할인)를 적용해 산출했다. 매수를 추천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장기 모멘텀은 유효하다. 12년 이후 실적이 개선돼 향후 3년간 매출액, 영업이익은 각각 연평균 10.5%, 22.8%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1) 자체제작 확대, 투자 강화로 시청률이 개선되는 등 방송 경쟁력이 높아져 광고수익이 늘어나며 디지털 방송 가입자 증가로 수신료수익이 14년까지 연간 10%씩 증가하고, 2) 중장기적으로는 전 사업 라인업 확대에 해외 진출 성과가 나타날 전망이다. 둘째,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확대에 부가수익이 증가하고 VOD, 모바일, 인터넷 등 다양한 형태로 콘텐츠 유통이 늘어나고 있다. 셋째, 비핵심 사업 매각에 따른 재무구조 개선도 긍정적이다.

■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케이블 SO 매각 결정, 주가에 긍정적

CJ E&M은 3월 14일 이사회를 통해 보유하고 있는 4개의 케이블 SO(System operator)를 CJ헬로비전에 매각한다고 공시했다. 총 처분가액은 1,697억원이고 4개 케이블 SO의 가입자수(55만명 수준) 기준으로 가입자당 31만원 수준에 매각한 것이다. 처분이익은 423억원으로, 처분 시점은 2분기 말로 예상된다. 11년말 기준으로 CJ E&M의 순차입금은 2,207억원이기 때문에 이번 매각 결정으로 재무구조가 개선될 전망이다.

■ 방송 시청률 호조, 경쟁력 강화의 신호

CJ E&M의 주요 프로그램인 보이스오브코리아, 오페라스타 등의 시청률이 각각 7%, 3%에 육박하는 등 호조를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주요 프로그램의 선전을 통한 방송 콘텐츠 경쟁력 강화는 결국 중장기적으로 광고수익 증가로 이어질 것이다. 우리는 12년 광고수익이 전년 대비 17.6%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 1분기 영업적자 불가피, 하반기부터 실적 개선 전망

12년 1분기 매출액은 광고수익 및 수신료수익 증가, 영화 흥행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23.4% 증가한 3,369억원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영업이익은 방송 제작비 증가, 게임 부문 마케팅비용 증가 등으로 96억원 적자전환될 전망이다. CJ E&M의 각 부문별 사업실적 개선은 2분기 이후 나타날 전망이다. 방송 부문은 2분기에 성수기 효과 및 광고단가 인상 효과가 발생하지만 게임 부문이 하반기부터 개선될 전망이다. 마계촌 온라인, Rift, S2 등 흥행이 기대되는 신규 게임이 2~3분기에 런칭돼 매출 기여가 하반기부터 나타나고, 서든어택의 기저효과(11년 7월 공동서비스 후 매출 감소)도 하반기에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매출액 (십억원)	영업이익 (십억원)	세전이익 (십억원)	순이익 (십억원)	EPS (원)	증감률 (%)	EBITDA (십억원)	PER (x)	EV/EBITDA (x)	PBR (x)	ROE (%)
2010A	99	13	9	6	(69)	NM	57	NM	8.6	0.6	(0.1)
2011F	1,143	70	63	59	1,525	NM	243	19.9	6.6	1.0	7.6
2012F	1,464	81	121	100	2,511	64.6	264	12.2	5.1	0.9	7.6
2013F	1,608	106	126	95	2,390	(4.8)	303	12.8	4.2	0.8	6.8
2014F	1,725	136	155	118	2,946	23.3	342	10.4	3.5	0.8	7.7

주: 순이익, EPS 등은 지배주주기준 기준

*상기 보고서는 2012년 3월 15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삼성전자(005930)

매수(유지)
목표가: 1,650,000원(상향)
종가(3/14): 1,250,000원

갤럭시노트로 써나가는 분기 OP 5조원 시대

■ 스마트폰 판매 호조를 반영하여 목표주가 165만원으로 상향

2012년 사업부문별 EBITDA에 글로벌 선두 경쟁업체들의 EV/EBITDA multiple을 적용한 Sum of the parts Valuation을 통해 목표주가를 165만원(기존 150만원)으로 상향한다. 목표주가는 2012년 EPS의 13.1배, 2012년 말 BPS의 2.3배이다. 투자포인트는 1) 갤럭시노트, 갤럭시S3로 이어지는 스마트폰의 시장지배력 및 높은 수익성, 2) 메모리 및 LCD에서 공급 초과와 하락 사이클 중 후발업체와의 격차를 더욱 크게 벌려 하반기 본격적인 수익 개선, 3) 공격적인 투자를 진행하는 시스템LSI 및 OLED의 성장성 등이다.

■ 1분기 영업이익 전망 5.1조원으로 상향, 통신 호조 vs. 반도체 부진

삼성전자의 1Q12 IFRS 연결기준 실적을 매출 44.9조원(기존 44.6조원), 영업이익 5.1조원(기존 4.6조원), 순이익 4조원(기존 3.8조원)으로 전망한다. 1분기 영업이익 전망 상향은 갤럭시노트를 필두로 한 스마트폰 판매 호조에 따른 통신 사업의 수익성 개선 효과 때문이다. 반도체는 3월 DRAM Contract 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모바일 DRAM 경쟁 과열 등으로 가격 하락세가 지속(-7.2% QoQ) 되고, 생산전환(NAND→System LSI)에 따른 14라인 생산 공백으로 OP 1.19조원(기존 1.49조원)으로 영업이익 전망을 하향한다.

■ 갤럭시노트로 숨겨진 5.3인치 수요를 찾아낸다. 2012년 스마트폰 판매 2.2억대 전망

통신은 스마트폰 판매 호조(1Q12 45백만대 전망, 기존 4천만대, 4Q11 37백만대)에 따른 ASP 상승(\$173, 10.5% QoQ) 및 계절적인 마케팅 비용 감소에 힘입어, OP 3.3조원, OPM 18%를 전망한다. 특히, 4Q11 출시한 갤럭시노트는 5.3인치 대화면에서 신규시장을 개척하고, 필기인식기능으로 차별화에 성공함으로써, 스마트폰 선두업체로서 삼성전자의 위상을 공고히 한다. 1Q 5백만대 판매를 전망하는 갤럭시노트는 현재 최고가 제품으로 1백만대 판매 당 영업이익이 2천억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추정한다. 2분기에는 갤럭시S3의 출하로 주력제품이 보강되면, 2012년 하이엔드 스마트폰의 시장지배력을 더욱 높여나갈 전망이다. 이에 따라 2012년 스마트폰 판매 전망을 2.23억대(기존 1.92억대)로 16% 상향한다.

■ 하반기 실적 개선은 부품에게 맡겨라. 부품 실적 개선 가속 전망

2012년에는 공급 조정에 따른 부품 수급 개선에 따라 지속적인 실적 개선을 통해 매출 196조원, 영업이익 23조원이 달성 가능할 전망이다. 반도체는 엘피다의 파산보호신청 이후 심리적 수급 개선 효과가 2분기 이후 PC 수요 회복에 따른 실질적인 수요 개선으로 이어질 전망이고, LCD의 경우, 재고 수준이 낮은 만큼 수급 개선을 기대한다. 특히, LCD는 2011년 1.66조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한 만큼 12년 흑자전환만으로도 OP 증가 기여도가 크다.

	매출액 (십억원)	영업이익 (십억원)	세전이익 (십억원)	순이익 (십억원)	EPS (원)	증감률 (%)	EBITDA (십억원)	PER (x)	EV/EBITDA (x)	PBR (x)	ROE (%)
2010A	154,630	17,297	19,329	15,799	105,992	63.3	28,690	9.0	4.8	1.7	20.4
2011A	165,002	16,250	17,159	13,359	89,073	(16.0)	29,842	11.9	5.2	1.7	14.6
2012F	196,430	23,031	24,409	18,995	126,286	41.8	41,279	9.9	4.5	1.7	17.9
2013F	214,433	26,123	28,002	21,790	144,870	14.7	46,168	8.6	3.9	1.5	17.5
2014F	237,689	30,900	33,264	25,885	172,097	18.8	53,451	7.3	3.4	1.3	17.7

*상기 보고서는 2012년 3월 15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솔브레인(036830)

매수(유지)
목표가: 56,000원(유지)
종가(3/14): 36,400원

일회적인 요인보다 실적 성장성에 주목하자

■ What's new: 희석화 효과를 모두 반영해도 주가상승 여력은 충분하다

지난 3월 2일과 12일에 걸쳐 전환사채(2011년 2월 28일 100억원 발행, 전환가능주식수 303,951주) 100억원 전량(303,951주 전환)에 대한 전환인수권과 신주인수권부사채(2011년 2월 28일 500억원 발행, 전환가능주식수 1,519,756주) 400억원(1,215,805주 전환)에 대한 신주인수권이 행사됐다. 이번 인수권 행사로 주주가치 희석에 따른 주가 하락 risk가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우리는 그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판단한다. 총 전환 가능 주식수 1,823,707주의 희석화 효과(기존 발행주식 대비 11%)를 반영해도 현재 주가는 2012년 추정 EPS기준 PER 9.8배로, 목표 PER 15배 대비 53% 상승여력이 있다.

■ Positives: 2012년 전 부문에 걸쳐 안정적인 성장추세 유지

2012년에도 동사는 전 부문에서 안정적인 성장추세를 이어갈 것이다. 부문별로 성장의 주요 근거는 1) 패널업체의 가동률 회복과 2분기 업황 회복에 따른 LCD식각액 사업의 성장, 2) SMD의 5.5세대 A2라인의 생산능력 확대에 따른 thin glass부문의 성장, 3) 삼성전자 시스템LSI 및 16라인 증설에 따른 반도체 소재 공급물량 확대 등이다. LCD식각액, thin glass, 반도체 부문의 2012년 연간 매출액 증가율은 각각 6%, 82%, 21%로 추정된다.

■ Negatives: 4분기 영업외 부문에서 일회성 비용 278억원 반영

4분기 실적은 매출액 1,350억원, 영업이익 166억원으로 시장의 기대에 부합했다. 역사적으로 1분기에 반영되던 성과급 비용이 4분기에 반영되어 영업이익률이 전분기 대비 2.8%p 감소했다. 대신, 1분기에는 성과급 비용의 기반영으로 평년 대비 높은 영업이익률이 전망된다. 또한, 4분기에 동사는 관계회사 투자주식손상차손비용 278억원을 반영해 130억원의 세전적자를 기록했는데, 이는 보유 중인 솔브레인이엔지(사명 변경 전 TSC멤시스)의 주식의 장부가치(3분기말 기준 410억원)가 공정가치 평가를 통해 감소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차손비용은 영업 및 현금흐름과는 무관한 비용이며, 이미 솔브레인이엔지의 주가 하락을 통해 동사 주식가치에 반영됐다고 보면 동사의 향후 실적과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

■ 결론: 투자의견 '매수' 및 목표주가 56,000원 유지

자회사 적자에 의한 연결기준 이익 감소와 주주가치 희석화 등의 우려로 주가가 최근 3개월 동안 15% 하락했지만, 다양한 제품 구성으로 전 부문에 걸쳐 실적 성장이 가능한 동사에 대한 투자의견 '매수'와 목표주가 56,000원을 유지한다. 목표주가는 2012년 추정 EPS 3,721원에 목표 PER 15배를 적용했다. 희석화 요인을 모두 반영해도 현재 주가는 저평가되어 있는 수준이다. 2012년에는 자회사들의 실적 또한 안정화될 것이므로 본사 실적의 성장에 집중된 투자 전략을 추천한다. 목표 PER 15배는 역사적 PER상단 수준이다.

(단위: 십억원, %, %p)

	4Q11P				증감률		2012F	
	추정	실적	차이	컨센서스	QoQ	YoY	당사	컨센서스
매출액	133	135	1.6	122	13.9	45.6	577	561
영업이익	20	17	(17.1)	18	(7.3)	28.3	85	81
영업이익률(%)	15.1	12.3		15.0			14.8	14.3
세전이익	19	(13)	적자전환	17	적자전환	적자전환	78	75
순이익	14	(16)	적자전환	12	적자전환	적자전환	61	59

*상기 보고서는 2012년 3월 15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풍산(103140)

매수(유지)
목표가: 46,000원(유지)
종가(3/14): 32,750원

이익 증가의 삼박자를 갖췄다

■ 이제 실적 개선이 주가에 반영될 시간

풍산의 주가는 동 가격에 따라 움직인다. 그러나, 3월 들어 동 가격은 0.4% 하락에 그쳤음에도 주가는 5%나 떨어졌다. 실적이 개선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매수 기회다. 2분기에 개별과 연결기준 영업이익이 각각 148%와 12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제 실적이 주가 상승을 견인할 시기가. ‘매수’ 투자 의견과 2012년 연결 EPS에 목표 PER 10배를 적용해 산출한 목표주가 46,000원을 유지한다.

■ 신동 출하량 회복과 방산의 계절적 수요가 실적을 이끈다

신동 출하량이 다시 늘어나고 있다. 이는 TV를 필두로 한 IT Set 생산 회복에 따른 판/대 수요 증가를 기반으로 한다. IT Set의 판매량은 계절적으로 4분기가 성수기여서 소재인 판/대 수요 호조는 적어도 2분기까지 이어질 것이다. 여기에 방산부분은 4분기에 이어 2분기 수요가 가장 좋다. 이에 따라, 실적 개선이 이어질 것이다. 1분기 신동출하량 회복에 이어 2분기에는 방산부분의 계절적 수요까지 더해져 실적이 개선될 것이다.

■ 동 가격 상승으로 metal loss에서 metal gain으로 전환

풍산 실적에 영향을 주는 metal gain/loss(전월 평균 동 가격 - 4개월 전 평균 동 가격)은 동 가격 상승으로 지난 2월에 2011년 9월 이후 5개월 만에 metal loss에서 metal gain으로 전환되었다. 3월에도 metal gain이 유지되고 있다. 월 평균 동 가격이 현재 가격(8,500달러/톤)보다 하락하지 않으면 2분기까지 metal gain이 유지된다. 신동 출하량 증가, 방산의 계절적 수요와 더불어 실적 개선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매출액 (십억원)	영업이익 (십억원)	세전이익 (십억원)	순이익 (십억원)	EPS (원)	증감률 (%)	EBITDA (십억원)	PER (x)	EV/EBITDA (x)	PBR (x)	ROE (%)
2009A	2,142	178	183	150	5,336	NM	239	4.0	6.6	0.7	19.5
2010A	2,708	351	190	149	5,326	(0.2)	404	9.0	6.2	1.4	16.5
2011P	2,881	123	67	41	1,453	(72.7)	191	18.0	10.9	0.8	4.3
2012F	3,145	216	162	130	4,626	218.4	289	7.0	7.6	0.9	13.0
2013F	3,654	264	211	166	5,937	28.3	341	5.5	6.3	0.8	14.8

*상기 보고서는 2012년 3월 15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한진해운(117930)

매수(유지)
목표가: 25,000원(유지)
종가(3/14): 17,550원

2분기부터 운임인상 효과 나타날 것

■ 1분기 영업손실 규모는 4분기와 유사할 듯

1분기에 1,586억원의 영업손실이 예상된다(IFRS 연결기준). 작년 4분기 손실 규모가 1,694억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여전히 저조한 실적이며 2분기부터 빠르게 흑자 전환할 전망이다. 1분기 컨테이너 수송량은 9.7%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운임은 전년동기대비 12.1% 하락해 TEU당 1,144달러를 기록할 전망이다. 1월부터 운임이 전월대비 반등하고 있지만 작년 1분기보다는 여전히 낮다. 영업원가의 22%를 차지하는 유류비는 5,098억원으로 전년대비 9.2% 늘어날 전망이다. 같은 기간에 B-C 유가가 28% 오른 것에 비해 유류비 부담이 덜 늘어나는 것은 개선증가와 선대 대형화로 유류 소비량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작년 1분기에는 77만톤의 B-C를 사용했지만 올해 1분기 소비량은 67만톤에 그칠 것이다. 1분기에는 작년 4분기보다 매출액과 영업원가가 약간씩 줄어들면서 비슷한 규모의 영업손실을 내는 그림이다.

■ 배가 줄어들고 있다?

선사들이 선박 효율성 제고(탑재율↑)와 운임 회복을 위해 계선을 늘려가고 있다. 이로 인해 작년 6월에 0.5%였던 컨테이너선 계선율이 최근 5.4%로 상승했다(그림 1 참고). 전문가들은 올해 세계 컨테이너선 공급량이 8%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으나 최근 상황을 보면 실제 영업에 투입되고 있는 선박량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 아시아-유럽항로에 투입되는 선박량은 작년 6월 대비 10.5% 줄어들었고, 아시아-미주항로 선박량은 작년 7월 고점 대비 12.3% 줄어들었다(그림 2 참고).이같은 현상은 운임 회복을 위해 선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현재 5.4%인 계선율이 연말에 10%까지 상승한다면 올해 말 기준으로도 영업에 투입되는 선박량은 전년 수준에 그칠 수 있다.

■ 운임 추가상승 여력 높아 - 이익 전망 컨센서스 상승 중

‘매수’투자의견과 목표주가 25,000원을 유지한다(목표주가는 올해 예상 BPS에 PBR 1.3배를 적용해 구한 것, 2월 21일 제시). 3월 첫째 주 아시아→유럽항로 spot 운임이 일주일 만에 71% 올랐다(SCFI기준). 3월 둘째 주 같은 항로 운임은 12월 9일 저점 대비 거의 세 배 올라 있다(183% 상승). 운임이 단기간에 급등하다 보니 화주의 반발도 크고 추가 인상이 어려울 수 있다는 부정적인 시각도 있다. 우리는 향후 운임 상승률은 둔화되겠지만 시장이 예상하는 것보다는 큰 폭의 운임인상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는 작년 4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의 선사들의 적자폭이 과거 어느 때보다 커, 운임 회복 의지 또한 과거 어느 때보다 강하기 때문이다. 업계는 3월 15일로 예정되어있는 아시아→미주항로 운임인상, 4월 1일에 시행되는 아시아→유럽항로의 추가 인상이 잘 진행될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가 있다.

	매출액 (십억원)	영업이익 (십억원)	세전이익 (십억원)	순이익 (십억원)	EPS (원)	증감률 (%)	EBITDA (십억원)	PER (x)	EV/EBITDA (x)	PBR (x)	ROE (%)
2009A	1,502	(120)	(133)	(60)	(808)	-	(51)	NM	(95.2)	0.7	(3.1)
2010A	9,896	648	302	272	3,415	NM	1,072	10.5	5.9	1.2	12.3
2011F	9,523	(493)	(815)	(832)	(8,448)	NM	(37)	NM	(148.2)	0.7	(35.6)
2012F	11,608	548	243	235	1,881	NM	1,066	9.2	6.2	0.9	10.3
2013F	12,166	590	272	264	2,109	12.1	1,112	8.2	6.0	0.8	10.4

주: 순이익, EPS 등은 지배주주기준 기준

*상기 보고서는 2012년 3월 15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 주요 증시 지표

구 분		03/08(목)	03/09(금)	03/12(월)	03/13(화)	03/14(수)	03/15(목)	
유가증권	종합주가지수	2,000.76	2,018.30	2,002.50	2,025.04	2,045.08	2,043.76	
	등락폭	18.61	17.54	-15.80	22.54	20.04	-1.32	
	등락종목	상승(상한)	500(6)	444(6)	304(3)	492(2)	462(5)	327(3)
		하락(하한)	324(2)	350(1)	536(1)	332(2)	359(0)	499(1)
	ADR	95.10	95.43	92.94	92.93	94.33	91.62	
	이격도	10 일	99.61	100.43	99.73	100.68	101.47	101.33
		20 일	99.47	100.34	99.53	100.60	101.49	101.38
	투자심리	50	60	50	60	60	50	
	거래량 (백만 주)	450	407	370	443	535	471	
거래대금 (십억 원)	6,243	5,296	4,734	5,582	6,310	5,913		
코스닥	코스닥지수	535.76	539.55	536.11	538.46	538.86	538.31	
	등락폭	3.28	3.79	-3.44	2.35	0.40	-0.55	
	등락종목	상승(상한)	560(26)	549(9)	387(15)	491(15)	466(17)	366(12)
		하락(하한)	400(13)	413(5)	565(6)	464(5)	482(7)	581(7)
	ADR	103.38	102.61	98.03	95.71	94.73	91.81	
	이격도	10 일	99.37	100.10	99.61	100.04	100.14	100.12
		20 일	99.64	100.20	99.49	99.88	99.92	99.82
	투자심리	50	60	50	60	60	50	
	거래량 (백만 주)	782	879	765	755	845	813	
거래대금 (십억 원)	2,322	2,330	2,185	2,251	2,464	2,401		

◆ 주체별 순매수 동향

(단위: 십억원)

구 분	개 인	외국인	기관계	(증권)	(보험)	(투신)	(사모)	(은행)	(종기금)	기 타	
유가증권	매수	3,223.6	1,306.1	1,239.2	220.9	300.8	313.6	46.9	53.5	303.5	182.7
	매도	3,147.6	1,168.9	1,458.6	174.2	211.0	642.2	57.2	60.4	313.6	176.4
	순매수	76.0	137.2	-219.4	46.7	89.8	-328.6	-10.3	-6.9	-10.1	6.3
	03 월 누계	277.6	-32.6	-204.1	45.5	412.7	-628.7	-27.5	13.8	-19.9	-40.8
	12 년 누계	-6,653.4	10,486.5	-2,587.4	777.0	913.1	-3,393.5	181.8	293.2	-1,359.0	-1,245.7
코스닥	매수	2,249.2	71.0	81.8	6.3	19.5	32.6	3.5	4.8	15.1	18.9
	매도	2,210.2	80.6	109.5	11.5	13.4	50.6	6.4	7.0	20.6	20.5
	순매수	38.9	-9.6	-27.7	-5.2	6.1	-18.0	-2.9	-2.2	-5.5	-1.6
	03 월 누계	186.3	0.4	-113.8	-18.7	-21.6	-61.4	-7.1	-1.5	-3.4	-72.9
	12 년 누계	531.7	-0.2	-129.5	-37.7	31.7	-189.9	10.0	-24.2	80.6	-402.0

주: 외국인인 외국인투자등록이 되어있는 투자자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KOSPI 기관별 당일 매매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투 신			
순 매 수		순 매 도	
운수창고	8,570	화학	-99,233
제조업	1,730	서비스업	-63,314
은행	1,158	전기,전자	-58,946
LG디스플레이	10,593	SK이노베이션	-40,939
대우조선해양	10,039	삼성전자	-32,001
락앤락	8,434	S-Oil	-26,492
현대글로벌비스	8,215	OCI	-23,637
한진중공업	6,989	LG화학	-21,660

연 기 금			
순 매 수		순 매 도	
전기,전자	57,667	화학	-44,350
금융업	29,984	철강및금속	-32,786
운수창고	19,249	서비스업	-20,917
삼성전자	41,571	SK이노베이션	-19,143
KB금융	25,924	POSCO	-16,964
현대글로벌비스	14,854	OCI	-16,921
LG디스플레이	12,054	하이닉스	-9,455
현대모비스	8,529	호남석유	-9,411

(체결기준: 백만원)

은 행			
순 매 수		순 매 도	
운수창고	1,879	유통업	-4,653
운수장비	1,650	화학	-4,002
기계	1,588	철강및금속	-2,156
현대글로벌비스	1,756	삼성물산	-4,282
현대중공업	1,477	LG화학	-1,809
KB금융	1,447	호남석유	-1,234
두산인프라코어	1,395	엔씨소프트	-1,194
유한양행	1,199	SK이노베이션	-1,128

보 험			
순 매 수		순 매 도	
전기,전자	53,340	화학	-20,044
운수장비	24,674	철강및금속	-6,701
금융업	22,162	기계	-4,524
삼성전자	24,703	S-Oil	-8,410
현대모비스	13,406	OCI	-6,689
LG디스플레이	10,222	고려아연	-6,323
LG전자	8,442	두산인프라코어	-5,850
KB금융	7,624	SK이노베이션	-4,401

◆ KOSPI 기관/외인 당일 매매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기 관			
순 매 수		순 매 도	
전기,전자	64,157	화학	-159,230
금융업	48,887	철강및금속	-89,000
운수창고	33,850	서비스업	-70,048
삼성전자	50,497	SK이노베이션	-58,193
KB금융	41,780	OCI	-49,406
현대모비스	32,663	S-Oil	-40,465
현대글로벌비스	31,149	고려아연	-32,839
LG디스플레이	30,498	하이닉스	-31,270
락앤락	24,872	LG화학	-29,255
한진중공업	12,682	POSCO	-27,040
우리금융	10,418	호남석유	-22,912
대우조선해양	10,250	현대제철	-22,019
삼성테크윈	9,223	GS	-16,915

외 국 인			
순 매 수		순 매 도	
운수장비	89,966	전기,전자	-54,250
서비스업	44,339	철강및금속	-16,328
보험	24,405	기계	-4,657
현대차	69,380	삼성전자	-91,241
엔씨소프트	40,110	현대제철	-34,134
POSCO	18,253	호남석유	-10,203
기아차	16,149	두산인프라코어	-8,172
LG상사	14,236	NHN	-7,684
삼성전자우	11,736	LG	-6,921
SK이노베이션	10,964	현대위아	-5,713
하이닉스	10,695	한진중공업	-5,280
현대모비스	9,643	락앤락	-5,002
신한지주	9,306	대우조선해양	-4,950

주: 외국인은 외국인투자등록이 되어있는 투자자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KOSDAQ 기관별 당일 매매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투 신		투 신	
순 매 수	순 매 도	순 매 수	순 매 도
전기,전자	64,157	화학	-159,230
금융업	48,887	철강및금속	-89,000
운수창고	33,850	서비스업	-70,048
삼성전자	50,497	SK이노베이션	-58,193
KB금융	41,780	OCI	-49,406
현대모비스	32,663	S-Oil	-40,465
현대글로벌비스	31,149	고려아연	-32,839
LG디스플레이	30,498	하이닉스	-31,270

연 기 금		연 기 금	
순 매 수	순 매 도	순 매 수	순 매 도
운수장비	89,966	전기,전자	-54,250
서비스업	44,339	철강및금속	-16,328
보험	24,405	기계	-4,657
현대차	69,380	삼성전자	-91,241
엔씨소프트	40,110	현대제철	-34,134
POSCO	18,253	호남석유	-10,203
기아차	16,149	두산인프라코어	-8,172
LG상사	14,236	NHN	-7,684

(체결기준: 백만원)

은 행		은 행	
순 매 수	순 매 도	순 매 수	순 매 도
출판,매체복제	1,104	반도체	-1,245
인터넷	561	방송서비스	-697
제약	331	IT부품	-663
에스엠	1,026	CJ오쇼핑	-697
SK컴즈	422	파트론	-687
게임빌	345	원익IPS	-684
CJ E&M	309	오텍	-314
셀트리온	268	후너스	-276

보 험		보 험	
순 매 수	순 매 도	순 매 수	순 매 도
출판,매체복제	3,782	기계,장비	-1,554
인터넷	2,131	금속	-1,510
방송서비스	823	반도체	-778
에스엠	3,118	네오위즈게임즈	-1,294
다음	2,648	태광	-975
게임빌	1,137	에스에프에이	-727
네패스	1,081	STS반도체	-611
파라다이스	758	에이블씨엔씨	-592

◆ KOSDAQ 기관/외인 당일 매매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기 관		기 관	
순 매 수	순 매 도	순 매 수	순 매 도
인터넷	3,580	반도체	-11,816
출판,매체복제	3,435	기계,장비	-7,582
소프트웨어	636	전문기술	-3,654
다음	4,519	CJ E&M	-3,758
에스엠	2,586	원익IPS	-3,297
게임빌	2,509	네오위즈게임즈	-3,177
위메이드	1,508	파트론	-2,682
네패스	1,250	오성엘에스티	-2,399
넥스콘테크	727	에스에프에이	-2,104
옵트론텍	690	OCI머티리얼즈	-1,900
이라이콤	672	덕산하이메탈	-1,697
한국사이버결제	666	평화정공	-1,645
나노신소재	661	실리콘웍스	-1,493

외 국 인		외 국 인	
순 매 수	순 매 도	순 매 수	순 매 도
제약	4,704	디지털컨텐츠	-3,694
인터넷	4,672	IT부품	-3,004
음식료,담배	927	전문기술	-2,420
다음	4,811	네오위즈게임즈	-2,826
셀트리온	2,964	AP시스템	-2,376
하림	2,099	CJ E&M	-2,287
OCI머티리얼즈	1,735	EG	-2,250
솔브레인	1,623	크루셀텍	-1,813
에스엠	859	에스에프에이	-1,363
성광벤드	829	안철수연구소	-1,152
고영	705	덕산하이메탈	-1,114
실리콘웍스	613	이녹스	-1,027
코오롱생명과학	579	아큐픽스	-996

주: 외국인은 외국인투자등록이 되어있는 투자자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기관/외인 연속 순매수 상위 종목

(단위: 일)

KOSPI			
기	관	외	국 인
현대엘리베이	17 일	기아차	12 일
코오롱	11 일	오리온	11 일
현대산업	11 일	대웅제약	11 일
현대증권	8 일	아모레퍼시픽	10 일
삼성전자	8 일	아모레G	8 일
무림P&P	8 일	한라공조	7 일
모토닉	7 일	삼성생명	7 일
LG이노텍	7 일	세종공업	7 일

KOSDAQ			
기	관	외	국 인
이트레이드증권	17 일	동서	20 일
하나투어	11 일	성광벤드	14 일
심텍	7 일	한국정밀기계	13 일
네패스	5 일	씨젠	12 일
다음	2 일	셀트리온	10 일
태웅	2 일	다음	6 일
매일유업	1 일	다산네트웍스	5 일
포스코엠텍	1 일	우리이티아이	5 일

◆ 기관/외인 5일간 누적 순매수 상위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KOSPI			
기	관	외	국 인
삼성전자	220,313	현대차	219,695
KB금융	122,977	기아차	78,323
현대모비스	107,840	엔씨소프트	60,894
제일모직	80,497	하나금융지주	58,352
LG전자	65,686	만도	47,356
삼성전기	43,640	아모레퍼시픽	43,618
기업은행	39,026	삼성화재	42,135
우리금융	37,310	POSCO	41,255

KOSDAQ			
기	관	외	국 인
셀트리온	15,490	다음	24,110
골프존	5,851	셀트리온	21,428
심텍	5,849	성광벤드	4,885
네패스	5,221	실리콘웍스	4,487
하나투어	4,154	파라다이스	2,333
CJ오쇼핑	3,840	OCI머티리얼즈	2,213
아큐픽스	3,731	안철수연구소	2,176
휴캐스트	3,530	고영	2,129

◆ 기관/외인 동반 순매수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종	KOSPI		
	종	목	합
운수장비	15,449	89,966	105,415
금융업	48,887	15,160	64,047
은행	7,435	1,165	8,600
현대모비스	32,663	9,643	42,306
LG디스플레이	30,498	1,961	32,459
현대글로벌비스	31,149	1,189	32,338
우리금융	10,418	5,087	15,505
삼성엔지니어링	8,162	4,104	12,267
삼성테크윈	9,223	2,302	11,525
삼성전기	5,077	4,141	9,219
기업은행	7,634	1,218	8,851
현대중공업	3,001	5,003	8,004
LG유플러스	3,707	4,231	7,938

종	KOSDAQ		
	종	목	합
인터넷	3,580	4,672	8,251
출판,매체복제	3,435	896	4,331
방송서비스	500	42	542
다음	4,519	4,811	9,330
에스엠	2,586	859	3,445
네패스	1,250	196	1,446
넥스콘테크	727	42	769
이엔에프테크놀로지	149	558	707
나노신소재	661	43	703
로엔	596	35	631
탱크웨어	569	7	576
메디톡스	331	243	574
씨젠	506	60	566

주: 기관/외인 동반 순매수 종목 가운데 기관/외인 합계 순매수 금액이 큰 순서대로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기관/외인 연속 순매도 상위 종목

(단위: 일)

KOSPI			
종목	기관	외국인	연속
쌍용양회	18 일	유니드	11 일
오리온	15 일	빙그레	10 일
삼성화재	14 일	한진해운홀딩스	9 일
한국전력	13 일	태광산업	9 일
제일기획	12 일	한진중공업	7 일
한솔제지	11 일	SK텔레콤	6 일
에스원	9 일	녹십자	4 일
LG화학	9 일	국도화학	4 일

KOSDAQ			
종목	기관	외국인	연속
AP시스템	12 일	원익IPS	14 일
테크노세미켐	11 일	주성엔지니어링	14 일
포스코켐텍	10 일	평화정공	8 일
KH바텍	7 일	네오위즈게임즈	8 일
SDN	7 일	포스코엠텍	7 일
KCC건설	6 일	CJ E&M	7 일
우주일렉트로	6 일	KTH	5 일
파트론	6 일	쌍용건설	4 일

◆ 기관/외인 5일간 누적 순매도 상위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KOSPI			
종목	기관	외국인	누적
호남석유	-107,388	삼성전자	-236,381
LG화학	-98,681	현대제철	-55,751
SK이노베이션	-95,877	LG	-30,158
POSCO	-89,026	LG전자	-24,895
하이닉스	-84,046	KB금융	-23,177
현대제철	-82,925	락앤락	-21,139
S-Oil	-80,607	호남석유	-20,357
고려아연	-71,920	CJ제일제당	-19,411

KOSDAQ			
종목	기관	외국인	누적
CJ E&M	-10,456	아큐픽스	-7,896
에스엠	-7,414	메디포스트	-6,718
파라다이스	-5,916	네오위즈게임즈	-6,247
네오위즈게임즈	-5,571	CJ E&M	-5,955
솔브레인	-5,253	서울반도체	-4,135
원익IPS	-5,041	AP시스템	-3,962
포스코켐텍	-4,461	EG	-3,960
에스에프에이	-4,409	덕산하이메탈	-3,259

◆ 기관/외인 동반 순매도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KOSPI			
종목	기관	외국인	합계
철강및금속	-89,000	-16,328	-105,329
기계	-19,500	-4,657	-24,157
종이, 목재	-270	-1,311	-1,581
현대제철	-22,019	-34,134	-56,153
S-Oil	-40,465	-2,802	-43,267
호남석유	-22,912	-10,203	-33,115
LG화학	-29,255	-3,598	-32,853
두산인프라코어	-12,805	-8,172	-20,977
현대위아	-9,635	-5,713	-15,348
한국전력	-10,417	-219	-10,636
SK텔레콤	-5,861	-1,675	-7,536
만도	-4,107	-2,131	-6,238
풍산	-5,423	-547	-5,970

KOSDAQ			
종목	기관	외국인	합계
반도체	-11,816	-1,932	-13,747
기계, 장비	-7,582	-384	-7,966
전문기술	-3,654	-2,420	-6,074
CJ E&M	-3,758	-2,287	-6,045
네오위즈게임즈	-3,177	-2,826	-6,003
에스에프에이	-2,104	-1,363	-3,467
원익IPS	-3,297	-159	-3,456
AP시스템	-859	-2,376	-3,235
덕산하이메탈	-1,697	-1,114	-2,812
파트론	-2,682	-9	-2,691
평화정공	-1,645	-751	-2,396
태광	-1,243	-189	-1,432
에이블씨엔씨	-1,104	-311	-1,415

주: 기관/외인 동반 순매수 종목 가운데 기관/외인 합계 순매수 금액이 큰 순서대로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공매도 거래대금 상위 종목

(체결기준: 천주, 백만원)

KOSPI		
종 목	주 수	금 액
LG디스플레이	349	9,785
LG전자	83	7,691
한진해운	340	5,937
현대차	26	5,782
POSCO	13	5,298
하이닉스	165	4,935
삼성전자	4	4,749
현대중공업	14	4,550

KOSDAQ		
종 목	주 수	금 액
셀트리온	33	1,244
에스엠	21	1,072
게임빌	9	594
아가방컴퍼니	44	579
EG	11	574
서울반도체	21	528
원익IPS	47	429
주성엔지니어링	29	317

주: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 기준임

◆ 대차잔고 상위 종목

(체결기준: 천주, 백만원)

KOSPI		
종 목	주 수	금 액
삼성전자	3,090	3,863,060
POSCO	7,761	3,092,730
OCI	6,716	1,762,875
LG전자	17,499	1,625,654
현대차	4,869	1,095,467
하이닉스	29,649	877,599
현대중공업	1,915	637,544
삼성전기	6,410	630,716

KOSDAQ		
종 목	주 수	금 액
셀트리온	17,688	669,497
서울반도체	6,250	160,001
덕산하이메탈	2,188	55,468
차바이오앤	3,826	42,279
원익IPS	4,072	36,771
크루셀텍	2,391	34,555
멜파스	1,400	34,430
태광	923	29,024

주: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 기준임

◆ 대차잔고 5일간 누적 순증/감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천주)

KOSPI			
순 증	순 감	순 증	순 감
화학	3,978	전기,전자	-1,587
운수창고	3,283	건설업	-1,439
금융업	2,885	통신업	-1,423
한진해운	2,447	LG전자	-1,829
녹십자홀딩스	2,349	LG유플러스	-1,255
하나금융지주	1,851	대우조선해양	-670
금호타이어	1,554	대우건설	-559
한국전력	955	삼성전기	-477
기아차	909	강원랜드	-439
LG이노텍	693	대한제강	-392
한화케미칼	690	동양강철	-346
우리금융	598	STX엔진	-283
SK증권	576	동부CNI	-245

KOSDAQ			
순 증	순 감	순 증	순 감
제약	679	화학	-818
반도체	504	소프트웨어	-537
IT부품	479	도매	-245
차바이오앤	567	SSCP	-758
셀트리온	517	유비케어	-533
STS반도체	362	씨티씨바이오	-199
이상네트웍스	360	삼우이엠씨	-180
포스코 ICT	242	원익IPS	-176
안국약품	177	좋은사람들	-137
흠캐스트	167	네오위즈게임즈	-110
덕산하이메탈	82	파라다이스	-68
루멘스	80	코리아나	-55
지아이바이오	75	크루셀텍	-46

주: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 기준임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증시 거래 주체별 매매 동향

(단위: 십억원)

구 분	연간 누계	월간 누계	5일간 누계	03/09(금)	03/12(월)	03/13(화)	03/14(수)	03/15(목)
외국인	10,486.5	-32.6	662.6	15.5	-146.8	120.2	536.6	137.2
기관계	-2,587.4	-204.1	-219.4	-8.2	-115.5	82.6	41.3	-219.4
(투신)	-3,393.5	-628.7	-513.0	-17.3	-122.1	17.9	-63.0	-328.6
(연기금)	-1,310.6	-27.8	-97.1	-82.0	-24.2	4.7	16.6	-12.2
(은행)	293.2	13.8	31.3	48.9	20.3	0.9	-31.9	-6.9
(보험)	913.1	412.7	248.0	8.6	-53.1	81.5	121.3	89.8
개인	-6,653.4	277.6	-532.3	-102.4	286.3	-313.1	-479.2	76.0
기타	-1,245.7	-40.8	89.1	95.1	-24.0	110.4	-98.6	6.3

주: KOSDAQ 제외

◆ 증시 자금 동향

(단위: p, 십억원, %)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03/08(목)	03/09(금)	03/12(월)	03/13(화)	03/14(수)
KOSPI	1,682.77	2,051.00	1,825.74	2,000.76	2,018.30	2,002.50	2,025.04	2,045.08
고객예탁금	12072.0	14068.5	17680.2	19558.4	19093.1	18822.9	18771.3	18768.5
(증감액)	2735.7	1996.5	3611.7	-404.0	-465.3	-270.2	-51.6	-2.8
(회전율)	52.6	51.5	34.2	44.7	40.7	37.3	42.3	47.6
실질예탁금 증감	-292.5	-3502.6	3775.5	109.9	-130.7	-60.1	-164.2	266.8
신용잔고	4359.5	5938.3	4476.3	5086.9	5125.0	5158.7	5163.5	5172.6
미수금	240.2	192.3	187.7	221.0	210.6	172.2	156.0	186.8

주1: 실질예탁금 증감=고객예탁금증분+개인순매수-(신용증분+미수금 증분) / 고객 예탁금 회전율=(KOSPI, KOSDAQ 거래대금/고객예탁금)*100

주2: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까지 제공, KOSCOM

◆ 국내 수익증권 유출입 동향

(단위: 십억원)

구 분	설정 잔액	연간 누계	월간 누계	03/08(목)	03/09(금)	03/12(월)	03/13(화)	03/14(수)
전체 주식형	99,342	-5,270	-870	-193	-28	-56	42	-136
(ex. ETF)		-5,858	-726	-34	-37	-103	20	-184
국내 주식형	69,008	-4,371	-678	-174	-11	-40	57	-115
(ex. ETF)		-4,965	-533	-16	-20	-87	35	-162
해외 주식형	30,334	-899	-192	-18	-17	-16	-15	-22
(ex. ETF)		-893	-192	-18	-17	-16	-15	-22
주식 혼합형	11,819	-335	-160	-69	3	-70	-3	-24
채권 혼합형	18,357	10	-35	-13	-45	5	-15	24
채권형	45,445	-24	875	-62	25	-112	866	-155
MMF	64,845	11,439	6,936	-1,057	338	-295	949	272

주: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까지 제공, 금융투자협회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주요 이머징마켓 외국인 매매 동향

(단위: 백만달러)

국 가	연간 누계	월간 누계	5일간 누계	03/09(금)	03/12(월)	03/13(화)	03/14(수)	03/15(목)
한 국	9,313	5,509	614	-375	14	-131	107	460
대 만	4,823	1,717	1,072	40	83	-7	389	-
인 도	8,170	2,183	731	-59	271	278	-	-
인도네시아	593	271	422	15	37	50	88	-
태국	2,033	96	217	-55	81	15	9	-
남아공	-884	-851	116	-76	-49	43	60	-
필리핀	636	366	66	11	-0	17	19	-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 주요 금리, 환율 및 원자재 가격

(단위: %, 원, 엔, p, 달러)

구 분	2011년	03/08(목)	03/09(금)	03/12(월)	03/13(화)	03/14(수)	03/15(목)
회사채 (AA-)	4.21	4.29	4.30	4.28	4.28	4.32	4.37
회사채 (BBB-)	10.01	10.03	10.04	10.03	10.03	10.06	10.10
국고채 (3년)	3.34	3.48	3.49	3.47	3.48	3.52	3.57
국고채 (5년)	3.46	3.60	3.61	3.59	3.59	3.62	3.68
국고채 (10년)	3.79	3.87	3.87	3.85	3.85	3.89	3.95
미 국채 (10년)	1.88	2.01	2.03	2.03	2.13	2.27	-
일 국채 (10년)	0.99	0.99	0.99	0.98	0.98	1.01	-
원/달러	1,151.80	1,118.30	1,117.80	1,124.00	1,121.50	1,126.10	1,127.80
원/엔	1,492.00	1,371.00	1,358.70	1,367.00	1,356.00	1,347.00	1,346.00
엔/달러	77.24	81.58	82.27	82.26	82.72	83.64	83.82
달러/유로	1.29	1.32	1.31	1.31	1.30	1.30	1.30
DDR3 1Gb (1333MHz)	0.64	0.70	0.70	0.70	0.70	0.70	-
NAND Flash 16Gb (MLC)	2.81	2.37	2.36	2.34	2.34	2.33	-
CRB 지수	305.30	316.04	317.61	315.98	318.07	315.17	-
LME 지수	3,306.0	3,600.3	3,667.3	3,654.4	3,657.3	3,662.7	-
BDI	1,738	812	824	837	834	855	-
유가 (WTI, 달러/배럴)	98.83	106.58	107.24	106.34	106.71	105.43	-
금 (달러/온스)	1,566.80	1,698.70	1,711.50	1,699.80	1,694.20	1,642.90	-

자료: Bloomberg, KOSCOM, 한국투자증권

KOSPI200 선물 옵션 시장 동향

◆ 선물시장 지표

(단위: P, 계약)

	기초자산 KOSPI200	최근월물 1206월물	베이스스			거래량	미결제약정	
			이론	마감	평균		증감	
3월 9일	265.62	267.55	2.23	1.93	2.27	196,575	92,410	2,997
3월 12일	263.74	266.20	2.14	2.46	2.20	167,978	91,847	-563
3월 13일	266.90	270.20	2.14	3.30	2.97	209,628	98,143	6,296
3월 14일	269.85	272.85	2.14	3.00	2.99	197,395	95,676	-2,467
3월 15일	269.76	272.75	2.14	2.99	3.03	182,957	96,946	1,270

◆ 지수선물시장 투자주체별 매매동향

(단위: 계약)

	외국인	개인	기관종합					
			증권	투신	은행	보험	기금	
3월 9일	-1,335	1,062	745	352	305	-18	213	-78
3월 12일	225	85	-352	-349	-39	14	42	-22
3월 13일	5,347	-605	-3,312	-1,842	-366	-483	-644	28
3월 14일	-326	678	-969	437	-1,447	490	-520	70
3월 15일	-303	941	-402	683	-352	23	-686	-90
누적포지션	3,608	2,161	-4,290	-719	-1,899	26	-1,595	-11

◆ 지수선물 프로그램 매매동향

(단위: 십억 원)

	프로그램 전체			비차익거래			차익거래			차익거래잔고	
	매도	매수	순매수	매도	매수	순매수	매도	매수	순매수	매도	매수
3월 9일	762	705	-57	678	544	-133	85	161	76	6,392	7,752
3월 12일	719	518	-201	576	424	-152	142	94	-48	6,420	7,730
3월 13일	617	1,095	478	558	714	156	59	381	322	6,299	7,920
3월 14일	885	1,184	299	728	927	199	158	257	99	6,232	7,919
3월 15일	762	942	181	697	766	69	65	176	1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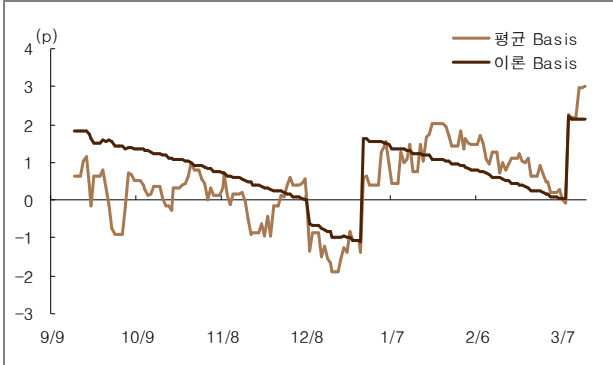
◆ 옵션시장 거래동향

(단위: 변동성(%) / 가격(P))

변동성	콜옵션			행사가격	풋옵션			변동성
	미결제증감	거래량	현재가		현재가	거래량	미결제증감	
16.69	-13,727	722,256	1.14	282.50	12.30	1,162	48	7.94
17.05	6,941	538,935	1.69	280.00	10.50	3,035	550	12.45
17.45	3,236	528,757	2.41	277.50	8.70	2,612	344	13.52
17.46	-1,057	83,176	3.20	275.00	7.05	13,161	899	14.13
18.61	-207	55,988	4.50	272.50	5.60	36,062	2,129	14.60
18.96	1,051	45,031	5.75	270.00	4.65	38,653	1,095	15.98
19.73	-595	17,060	7.30	267.50	3.70	39,376	819	16.66
20.69	398	3,859	9.05	265.00	2.87	322,536	-329	17.13
21.35	64	934	10.85	262.50	2.28	454,206	-805	17.91
22.36	91	1,376	12.85	260.00	1.74	402,547	9,228	18.36
23.66	-72	270	15.00	257.50	1.36	270,718	-311	19.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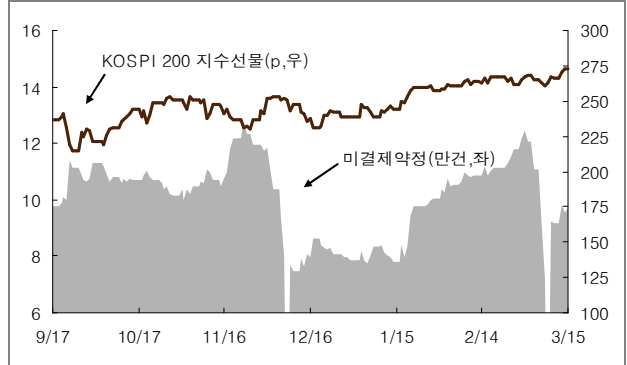
■ 주요 지표

이론 Basis & 평균 Bas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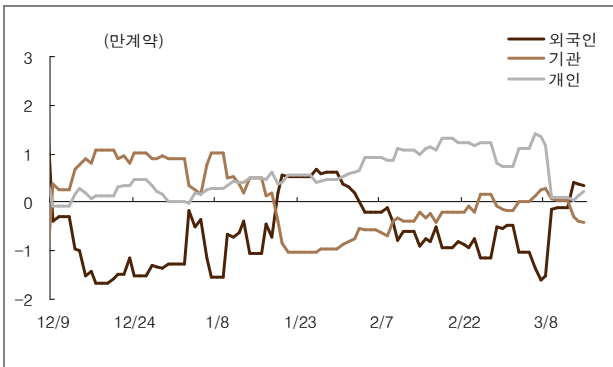
- 평균 Basis: 3.03 (전 거래일 대비 0.04 상승)
- 이론 Basis: 2.14

선물 가격 & 미결제 약정수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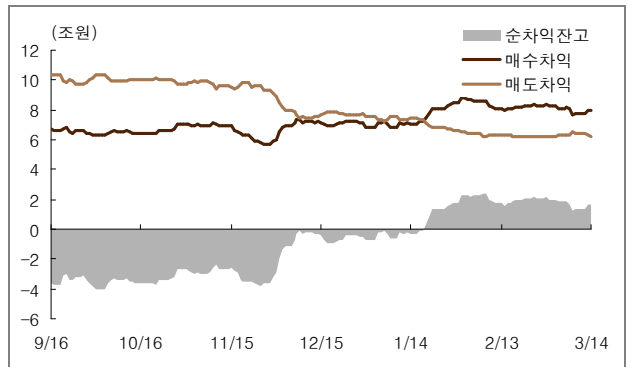
- 미결제약정: 전 거래일 대비 1,270 계약 증가한 96,946 계약
- 선물가격(272.75): 전 거래일 대비 0.10p 하락

투자주체별 누적 순매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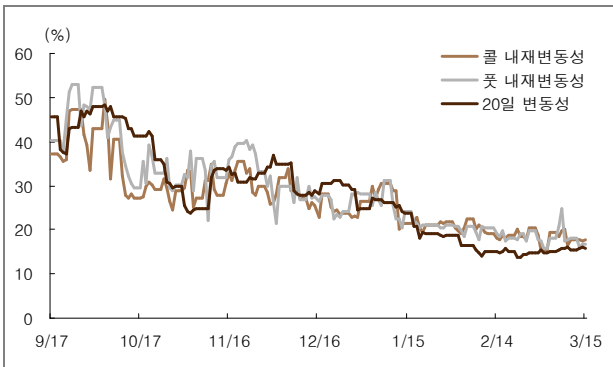
- 외국인: 303 계약 순매도
- 기관: 402 계약 순매도 / 개인: 941 계약 순매수

차익거래 잔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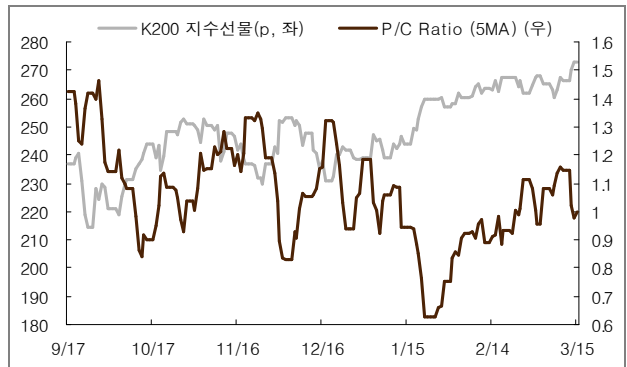
- 차익거래: 1,112 억원 순매수
- 비차익거래: 693 억원 순매수

KOSPI200 옵션 변동성 추이



- 대표 내재 변동성: 콜 17.9% / 풋 16.6% 기록
- 20일 역사적 변동성: 15.64% 기록

Put/Call Ratio



- 금액 기준 P/C Ratio(5MA): 1.00 기록

*** 데이터 불연속성은 선물 12년 6월물이 최근월물로 거래된 데 따른 것임

한 눈에 보는 증시 일정

월	화	수	목	금
5	6	7	8	9
韓> 2월 외환보유액 (\$315.80B, n/a, \$311.34B) 유럽> 1월 유로권 소매판매 YoY (0.0%, -1.5%, -1.6%) 1월 PMI 서비스 (48.8, 49.4, 49.4) 3월 섀넥스 투자자기대지수 (-8.2, -5.0, -11.1) 中> 2월 HSBC 서비스 PMI (53.9, n/a, 52.5) 전국인민대표회의 개막	美> 2월 ISM 비제조업지수 (57.3, 56.0, 56.8) 1월 제조업 수주 MoM (-1.0%, -1.5%, 1.1%) 유럽> 4Q 유로권 GDP YoY SA (0.7%, 0.7%, 0.7%)	韓> 2월 은행가계대출 (452.7T, n/a, 452.2T) 美> 주간 MBA 주택용자 신청지수 (-1.2%, n/a, -0.3%) 2월 ADP 취업자 변동 (21.6만, 21.5만, 17.0만) 1월 소비자 신용지수 (\$17.78B, \$10.45B, \$19.31B)	韓> 한국은행 통화정책회의 (3.25%, 3.25%, 3.25%) 美>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36.2만, 35.2만, 35.1만) 유럽> ECB 금리 공시 (1.00%, 1.00%, 1.00%) BOE 금리 공시 (0.50%, 0.50%, 0.50%) 日> 4Q 명목 GDP QoQ (-0.5%, -0.3%, -0.8%)	韓> 2월 생산자물가지수 YoY (3.5%, n/a, 3.4%) 美> 1월 무역수지 (-\$52.6B, -\$49.0B, -\$48.8B) 2월 비농업부문 고용자수 변동 (22.7만, 21.0만, 24.3만) 2월 실업률 (8.3%, 8.3%, 8.3%) 유럽> EU 외무장관 회의 그리스 국제교환협상(ISP) 만기일 中> 2월 생산자물가지수 YoY (0.0%, 0.1%, 0.7%) 2월 소비자물가지수 YoY (3.2%, 3.4%, 4.5%) (3/10) 2월 무역수지 (-\$31.5B, -\$5.35B, \$27.28B) (3/10) 2월 무역-수출 YoY (18.4%, 31.1%, -0.5%) (3/10) 2월 무역-수입 YoY (39.6%, 31.8%, -15.3%)
12	13	14	15	16
美> 2월 재정수지 (-\$231.7B, -\$229.0B, \$222.5B) 유럽> 유로권 재무장관 회의 中> 2월 신규 위안 대출 (710.7B, 750.0B, 738.1B) 2월 통화공급-M2 YoY (13.0%, 12.9%, 12.4%) 日> 1월 기계수주 YoY (5.7%, 4.4%, 6.3%) 2월 기업물가지수 MoM (0.2%, 0.2%, -0.1%) 2월 소비자자기대지수 (39.5, 40.5, 40.0) 실적발표 韓 STX조선해양	美> 2월 NFIB 소기업 낙관지수 (94.3, 94.5, 93.9) 2월 소매판매액 지수 MoM (1.1%, 1.1%, 0.4%) 3월 IBD/TIPP 경기낙관지수 (47.5, 50.0, 49.4) 1월 기업채고 SA MoM (0.7%, 0.5%, 0.4%) FOMC (0.25%, 0.25%, 0.25%) 유럽> EU 재무장관 회의 中> 전국인민대표회의 폐막 日> BOJ 정책금리 결정 (0.10%, 0.10%, 0.10%)	韓> 2월 실업률 (3.7%, 3.2%, 3.2%) 美> 2월 수입물가지수 YoY (5.5%, 5.8%, 7.1%) 주간 MBA 주택용자 신청지수 (-2.4%, n/a, -1.2%) 4분기 경상수지 (-\$124.1, -\$115.0B, -\$110.3B) FRB, 스트레스테스트 결과 발표 유럽> 2월 유로권 CPI YoY (2.7%, 2.7%, 2.7%) 유로권 산업생산 SA MoM (0.2%, 0.5%, -1.1%) 中> 2월 실제 FDI YoY (-0.9%, 14.6%, -0.3%) 日> 1월 산업생산 YoY (-1.3%, n/a, -1.2%) 2월 공업기계 수주 YoY (-8.6%, n/a, -8.6%)	美>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n/a, 35.7만, 36.2만) 3월 뉴욕주 제조업지수 (n/a, 17.50, 19.53) 2월 생산자물가지수 YoY (n/a, 3.3%, 4.1%) 3월 필라델피아 연준지수 (n/a, 12.0, 10.2) 유럽> 4분기 유로권 고용 YoY (n/a, n/a, 0.2%) 실적발표> 韓 LG패션	韓> 2월 수출물가지수 YoY (n/a, n/a, 4.6%) 2월 수입물가지수 YoY (n/a, n/a, 7.9%) 美> 2월 소비자물가지수 YoY (n/a, 2.9%, 2.9%) 3월 미시건대 소비자심리평가지수 (n/a, 76.0, 75.3) 2월 산업생산 MoM SA (n/a, 0.4%, 0.0%)
19	20	21	22	23
韓> 2월 백화점매출 YoY (미확정) 2월 할인점매출 YoY (미확정) 美> 3월 NAHB 주택시장지수	美> 1월 주택착공건수 MoM 1월 건축허가 MoM	美> 주간 MBA 주택용자 신청지수 2월 기존주택매매 MoM 日> 1월 전체공업활동지수 MoM	美>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1월 주택가격지수 MoM 2월 경기선행지수 MoM 유럽> 1월 산업 신규수주 YoY 3월 PMI 제조업 3월 PMI 서비스 3월 유로권 소비자자기대지수 EU 외무장관 회의 日> 2월 무역-수출 YoY 2월 무역-수입 YoY 실적발표> 美 페덱스	美> 2월 신규주택매매 MoM 中> 2월 경기선행지수 실적발표> 美 나이키

☞ 주: 괄호안은(발표치, 블룸버그 예상치, 이전치) 순이며 예상치는 변동 가능. 이전치는 수정 값 미반영분 발표일자는 한국시간 기준 (단, 오전6시 이전에 발표되는 지표는 전일 기입)
 실적발표일은 Bloomberg, 기업 공시 기준으로 작성 (변동 가능, *표시는 한국시간 당일 아침)

